

# 202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정책자료집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세계선교정책부  
세계선교사역부  
선교행정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정책자료집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세계선교정책부

세계선교사역부

선교행정부

# 인사의 말씀



태 동 화 목사  
(선교국 총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감리회 12개 연회와 6,700여 교회 그리고 120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81개국 1,292명의 선교사님들께도 격려와 진심의 치하를 드립니다.

영성 회복, 교회 회복, 세상의 빛을 이루어 나가는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3년도에 함께 동역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통하여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기도운동'과 '200만 전도운동'으로 영성을 회복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신앙과 부흥 전도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는 구한말에 고종 황제가 선교 윤허를 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듬해인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신학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 가우처 목사와 일본에서 입국한 매클레이 선교사를 조명하고 고종의 부국강병 프로젝트를 살펴봄으로써 신앙적인 뿌리를 든든히 하고 새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려 합니다. 초기 선교 순례의 여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2025년 선교 140주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연회와 총회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녹색연회와 총회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성도 된 우리들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의 모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환경을 늘 생각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후대를 위한 거룩한 책임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부흥과 작은 교회들 그리고 인구 소멸지역 교회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전도운동,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개혁학교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을 위한 재개혁학교도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총회나 연회가 시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시기에 감리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 제고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금년에는 국제회의와 행사도 많이 있으며 해외선교대회들도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서 한국감리교회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연대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해 오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에서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더욱 큰 지도력을 요구받고 있는 때에, 내실과 외적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가겠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조나 풍조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노력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총회와 선교국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국이 감리교회와 사회에 그리고 열방 중에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Contents

인사의 말씀 / 2
선교국 조직 / 8
선교국 직무분장 / 9
국내선교부 / 10
사회농어촌환경부 / 26
세계선교정책부 / 46
세계선교사역부 / 60
선교행정부 / 76
[부록] 200만 전도운동 / 88
[부록] 100년 전도운동 / 94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정책자료집

---



# [ 선교국 조직 ]

## 1. 선교국 위원회

위원장	이용원 감독	
연회명	교역자	평신도
서울연회	김광년	윤문근
서울남연회	김태근	안익수
중부연회	권영규	조병식
경기연회	이명환	문관식
중앙연회	정학진	조현행
동부연회	서치호	최승기
충북연회	한현종	정석준
남부연회	이용천	이강래
충청연회	정병한	이용남
삼남연회	염요섭	안승준
호남특별연회	이길수	최삼영
전문위원	이현식	장성배

## 2. 선교국 임직원

총무	태동화 목사		
부서명	직책	성명	비고
국내선교부	부장	홍석민	
	과장	금혜경	
사회농어촌환경부	부장	이승현	
	과장	금혜경	검직
세계선교정책부	부장	이강희	
	서기	한국화	
세계선교사역부	부장	남수현	
	서기	김영란	
선교행정부	부장	문희인	
	과장	김지민	

## 3. 산하기관 직원

국내선교부	담당(과장)	이효충	웨슬리전도학교
세계선교사역부	간사	전제경	MK장학재단, 세계선교협의회

# [ 선교국 직무분장 ]

부서명	담당자명	업무내용
총무	태동화 총무	1) 선교국 제반 업무 총괄 2) 선교신학 정책 및 교회연합, 에큐메니칼 업무
국내선교부	홍석민 부장	1) 교회부흥 성장 정책(총력전도운동) 2) 미자립교회 정책 3) 교회개혁 정책 4) 군선교 정책 5) 신앙과 직제 정책 6) 기관선교 정책 7) 목회자 유가족 후원 사업 8) 국내 이슬람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9) 이단대책 업무(2023년 12월부터 교육국으로 이관)
	금혜경 과장	1) 국내선교부 관련업무 보좌 2) 행정업무
사회농어촌 환경부	이승현 부장	1) 사회적 약자 선교 정책 2) 북한선교정책 및 탈북민 사업 3) 교회일치정책(에큐메니칼 운동) 4) 교회와 사회 정책 5) 농어촌 및 환경선교 정책
	금혜경 과장	1) 사회농어촌환경부 관련업무 보좌 2) 행정업무
세계선교 정책부	이강희 부장	1) 세계선교정책 연구(이슬람 선교대책 등) 2) 선교자원개발 양성 정책 3) 대외선교협력 4) 세계선교 홍보 활성화 정책 5)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
	한국화 서기	1) 세계선교정책부 관련업무 보좌 2) 행정업무
세계선교 사역부	남수현 부장	1) 선교사 관리 2) 선교사 자녀 장학사업 3) 전략선교지 개발 및 선교사 파송 4) 선교단체 관리 5) 선교사 자격인준 6) 선교사역개발(NGO, BAM)
	김영란 서기	1) 세계선교사역부 관련업무 보좌 2) 행정업무
선교행정부	문희인 부장	1) 선교국 행정 2) 선교국 홈페이지 및 정책 홍보 3) 선교국위원회 업무 4) 대외문서 수발, 배부, 보관의 업무 5) 선교국 관련 증명서 및 총무 추천서 발급의 업무 6) 대외협력 및 지원 업무 7) 선교국 정책조율 업무 8) 선교사 후원복지 업무
	김지민 과장	1) 선교행정부 행정업무 2) 선교사건강검진 업무 3) 선교국 홈페이지 관리 4) 국회계 업무

## [ 국내선교부 ]



홍 석 민 목사  
(국내선교부장)

###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 1. 교회부흥 성장 정책

감리교회 교세 현황은 2023년 연회 자료 기준으로 6,722개 교회, 230 지방, 1,137,128명의 성도 그리고 12,306명의 교역자(원로 1,756 포함)이다. 현재 개체 교회와 목회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교회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3년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전 감리교회적으로 개최하고 ‘200만 전도운동’과 ‘100년 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청년세대 전도를 위해 군선교와 학원 선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써 거론되는 해외 이민 문호 개방에 대비한 다문화 선교를 적극 준비하고자 한다.

## 1. 200만 전도운동(웨슬리전도학교)

‘200만 전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연회, 지방회, 교회별로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대장을 임명하여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웨슬리전도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회별 혹은 지방회 2~3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도부흥성회(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감리교회가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 감리교인은 매일 전도가 일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겠다.

## 2. 100년 기도운동

‘100년 기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년 365일 쉬지 않고 교회부흥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교회, 기관 그리고 개인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기도하는 감리교회’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감리회 홈페이지(www.kmc.or.kr) 메인 화면에 100년기도운동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메뉴 버튼이 신설되어 기도운동의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 3. 청년세대 선교 역량 강화

청년 복음화율이 3%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인 대한민국 국군 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리교 군선교회’를 통해 ‘군종목사단’과 ‘군선교교역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00만 대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캠퍼스 목회를 담당한 ‘교목’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본부 교육국과 협력하여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 변화에 맞춰 각종 SNS와 영상을 통한 청년 온라인 사역을 계발하고, 청년들을 교회 내에 의사 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어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 세우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 4. 다문화시대 선교 역량 강화

한국 사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

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2023년 기준)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이민 문호의 대대적인 개방이 논의되고 있다. 교회도 전면적인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선교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문화 선교 일꾼의 양성, 다문화 성경·찬송가 및 예배서의 준비, 다문화 예배장소 마련 등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II. 미자립교회 정책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이다. 감리교회 6,722교회 중 미주자치연회 및 해외 소재 지방회를 제외한 6,238교회 중 미자립교회는 2,892교회로 46.4%이다.(2023년 연회 자료 기준)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목회자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일과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자립교회 통계자료집

매해 연회 자료를 기준으로 연회별, 지방별 미자립교회를 파악하여 통계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2. 신바람 목회세미나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동기 부여와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바람 목회세미나’를 “비전교회와 함께하기 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와 협력하여 지난 13년 동안 연 2회씩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했던 세미나를 지방(농어촌 지역 포함)으로 확대하여 개최하려고 한다.

### 3. 이중직 목회(겸직 목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리와 장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중직 목회가 목회자의 단순한 생활 수단으로써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자립 선교의 바탕을 마련하는 이중직으로써 기능하도록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교회 자립선교회’를 조직하여 단순한 이중직 목회가 아닌 겸직 목회의 길을 연구하고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나아갈 방향과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연회와 총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회 상황에 따라 0.5% ~ 1.0%의 미자립교회 지원 부담금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 4. 공유교회

지난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공유교회’가 제도화 되었다. 미자립교회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것은 예배공간의 마련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교회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즉 하나의 예배공간을 복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예배를 위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한다는 ‘소유’ 개념을 탈피하는 것으로써 공유교회는 이런 점에서 미자립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에 미자립교회가 공유교회를 통해 부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III. 교회개척 정책

‘교회개척성장학교’를 통해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와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개척 부흥사례 자료집 ‘개척레시피 I, II, III, IV’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개척된 지 1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대상으로 ‘재개척학교’를 연회별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회별로 거점지역(예, 신도시, 선교 취약 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 공유하여 체계적인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1. 교회개척성장학교

교회 개척과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개척 관련 목회 정보를 제공하고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개척성장학교 세미나”를 ‘교회개척성장학교[NOVO.KOREA](학교장 최승호 목사)’와 협력하여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교회 개척을 희망하는 목회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 되도록 감리회 총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의 예비목회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행정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2. 재개척학교

성장이 멈춰 있는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개척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교회 재개척의 기본 철학부터 구체적인 현장 적용까지 교회 성장을 위한 실재를 다루고 있으며 격년으로 연회를 중심으로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다.

### 3. 개척교회 부흥사례 자료집 ‘개척레시피’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자료집 “개척레시피”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개척교회 사례를 7개의 분야(①선교-전도 중심교회, ②사역 중심교회, ③어린이-청소년 교회, ④청년 교회, ⑤문화 중심교회, ⑥농어촌 교회, ⑦공유 교회)로 나누어 각 분야별 부흥사례를 1~2개 교회씩 소개함으로써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힘쓰고 있다.

#### 4. 거점지역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그 동안 목회자 개인과 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등 선교 거점지역의 효율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총회와 연회가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출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식의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선교사업연구위원회'와 연회의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연회별 거점지역에 교회 개척을 결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 IV. 군선교 정책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매우 중요한 선교분야이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임관을 돕고 있으며, 군선교회·군목단·군선교교역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 1. 군종사관후보생

매년 신학대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고시'가 실시된다. 최근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종사관의 의무 복무기간은 여전히 40개월이어서 응시생이 현저히 줄었다.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부와 대학원의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군종목사단

현재 감리회 군종목사는 51명(2023년 말 기준)이다. 군목의 전



문적인 자질 향상과 격려를 위해 매년 “군종목사단 수련회”를 ‘감리교 군선교회(회장 강필성)’과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군선교의 미래를 위해 군목의 장기 복무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단 차원의 군 부대 방문과 위문 등 적극적인 선교 지원이 필요하다.

### 3. 군선교교역자회

현재 감리회 군선교교역자는 64명(2023년 말 기준)이다.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가 파송되지 못한 대대급 군인교회를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 군인교회의 특성 상 재정이 취약하기에 군선교교역자들의 생활과 선교활동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군선교교역자와 지방회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V. 신앙과 직제 정책

감리교회의 예배서, 예전, 기도문을 연구 제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교수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 1.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

기존의 선교국 산하 정책위원회였던 ‘신앙과직제위원회’의 직무가 교리와 장정 상, 본부특별위원회인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연회별 파송위원과 더불어 기존 신앙과직제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목회자와 교수들이 함께 하는 위원회로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 2. 예배서 발간 준비

감리교회는 예문(1991년), 예배서(1992년), 새예배서(2002년)를 발간해 왔다.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배서를 보충할 필요가 생겼다. 본부특별위원회인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새예배서 연구와 편찬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예배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 집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감리교인 모두가 은혜 받기에 충분한 예배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 VI. 기관선교 정책

현재 각 분야 별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 선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 간에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 1. 정책협의회 개최

개척선교회, 병원선교회, 경찰선교회, 교정선교회, 직장선교회 등 여러 기관의 선교회들과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또한 경찰선교회 안에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대학에서 선교하는 경목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경찰 선교의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의료선교회 창립 준비

병원 원목들이 함께 하는 ‘병원선교회’를 중심으로 감리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의료선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선교회를 원목, 의사, 간호사,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종사자들로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후원하는 선교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 Ⅶ. 목회자 유가족후원 사역

홀사모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624명이다. 이 중 재직 중 교역자 사망으로 홀사모가 된 이는 221명이다. 현재 예사회(예수자랑 사모선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재 ‘목회자 유가족돕기 운동본부’(회장: 김진호감독)를 중심으로 해마다 상, 하반기 자녀장학금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다.

### 1. 예수자랑 사모선교회

1999년 12월 창립되어 24년 간 홀사모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천안에 선교센터를 세워 봉헌했고 센터 안에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교국은 매년 ‘신앙수련회’를 개최하여 홀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2. 목회자 유가족돕기 운동본부

‘목회자 유가족돕기 운동본부(회장: 김진호감독)’는 감리교회 홀사모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약 40명이 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이며 매년 약 1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 Ⅷ. 이슬람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국내 유입 이슬람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는 무려 80배가 넘는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 산하에 ‘이슬람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있고, 선교국 산하에 이슬람연구원(총회인준기관)을 설치해 국내이슬람에 대

한 상황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세우도록 돕고 있다.

## 1. 이슬람연구원

‘이슬람연구원(대표/김진홍 목사)’은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더불어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선교국 산하에 설립되었다. 매년 ‘이슬람연구’ 책자 등을 발간하고 있다.

## 2. 무슬림 선교세미나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계몽 교육을 하여 교회와 성도가 이슬람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무슬림을 구원으로 대상으로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세미나를 2023년에 동부연회에서 개최하였으며 2024년에는 연회별로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 국내선교부 위원회 및 유관단체

### 1. 총회 위원회

위 원 회	위원장	위 원	비 고
이슬람 대책위원회	이 철	유요한, 박태엽, 김상수, 김준성, 이재만, 김동준, 정기현, 곽봉진, 한철희, 박성수, 김정희, 김진홍, 김형원, 태동화, 홍석민	
이단 대책위원회	이용원	임인규, 이진태, 임성모, 임완호, 현교용, 조진오, 이영한, 김현식, 김주열, 김래성, 여봉호, 차재용, 최승호, 유경동, 권진호, 이찬석, 태동화	2023.12. 교육국으로 업무 이관
미자립실태 조사위원회	미 정	강필성, 조금석, 성중현, 김광식, 한상일, 김승철, 이상철, 김종만, 탁석남, 이용섭, 이선재, 김동철, 박헌철, 황형준, 조춘성, 유만섭, 손 혁, 박용열, 김종복, 임경엽, 이석렬	

### 2. 국내선교부 위원회

위 원 회	위원장	위 원	비 고
개척/미자립 정책위원회	박영진	계인, 김기승, 김철성, 신동훈, 신현희, 조형진, 지익우, 최재훈, 황병배	
신앙과직제 위원회	박행신	양재훈, 한석문, 주학선, 나형석, 박은순, 박해정, 전창희, 정명성, 나인선	
기관선교 정책위원회	이영환	김영호, 이종서, 황건원	
군선교 정책위원회	문재황	강필성, 배홍성, 부경환, 윤용진, 이후승, 정비호, 태동화	

### 3. 유관단체 / 산하기관

단체명	대표	소재지	연락처
이슬람연구원	김진홍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0길 69,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내	02)364-0091
군선교회	임철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층 군선교회	02)399-3951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김삼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군선교연합회관	02)744-2661
예수자랑 사모선교회	배영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333-7	041)557-9135
목회자 유가족돕기 운동본부	김진호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406호	02)747-0788
비전교회와 함께하기 운동본부	김진호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406호	02)747-0788
개척선교회	김영호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4길 91	02)481-2040
병원선교회	이종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010-9865-7015
경찰선교회	박동찬	경기도 고양시 일동동구 숲마음로 83	031)904-1004
교정선교회	이기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18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1221호	02)766-4261
직장선교회	전창희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48, 종교교회 5층	02)6322-2117

## 국내선교부 2024년 주요 일정

### -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 -

#### 1. 개요

- 1) 2025년은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2) 2025년 부활절을 전, 후하여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3) 총회 차원의 준비를 위해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 4) 올해(2024년)는 한국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고종 선교 윤희 140주년”을 기념하는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 사전 행사

- 1) 고종 선교 윤희 140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
  - ① 취지 : 가우처 박사의 조선 선교 요청을 받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선교에 관한 윤희를 받은 해(1884년)를 기념하는 예배와 음악회를 통해 선교적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있다.
  - ② 일자 : 2024년 7월경
  - ③ 장소 : 중앙교회[가우처 기념예배당](서울연회 종로지방회, 담임목사 이형노)
  - ④ 초청대상 : 감리회본부(감독회장, 본부임원), 연회본부(감독, 총무), 평신도자치단체(전국회장, 연회회장) 등

2) 가우처 박사 및 맥클레이 선교사 선교여정 순례

- ① 취지 : 가우처 박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선교여정을 순례하면서 신앙을 본받는 기회로 삼고 신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래의 감리교회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돕는데 있다.
- ② 일자 : 2024년 8월경
- ③ 장소 : 일본
- ④ 초청대상 : 3개 신학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감리교회 청년 등

3) 고종 선교 윤희 1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① 취지 : 조선 선교와 시발점이 된 가우처 박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고종의 선교 윤희 과정과 이후 교육과 의료선교를 통해 한국사회와 선교에 미친 영향을 학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감리교회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 ② 일자 : 2024년 10월경
- ③ 장소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소재)
- ④ 초청대상 : 선교 140주년 기념관련 교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및 대학원생
- ⑤ 참고 : 유튜브를 통해 전국 감리교회에 생중계로 송출



분 야	구 분	내 용
1. 교회부흥성장 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만전도운동 연회별 전도대성회 개최</li> <li>• 감리교회 통계자료집 제작</li> <li>• 선교 140주년(2025년) 기념대회 준비 학술제</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년기도운동 2024-2025 교회 신청서 접수 및 기도회</li> <li>• 재개척학교(충청연회, 삼남연회) 개설</li> <li>•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준비 찬양제</li> </ul>
2. 개척 및 미자립교회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자립교회 정책 자료집 발간 및 심포지엄</li> <li>• 신바람목회세미나(호남특별연회)</li> <li>• 개척성장학교 지원</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척교회 모델 개발 세미나</li> <li>• 신바람목회세미나(동부연회)</li> </ul>
3. 군선교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종사관후보생 집체교육(군부대 입영)</li> <li>• 군종목사 안수예정자 교육</li> <li>•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준비교육 및 시험</li> <li>• 군종목사 파송예배</li> <li>• 군종목사단 수련회</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종사관후보생 집체교육(민간시설 이용)</li> <li>• 군선교교역자 수련회</li> <li>• 군선교회 총회</li> </ul>
4. 신앙과직제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예배서 연구 및 준비</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연수교육(예배/성만찬) 관련 준비 및 진행</li> </ul>
5. 기관선교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교 의료선교회 조직 및 창립예배</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선교회 재정 지원</li> </ul>
6. 목회자유가족 후원 사역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자 유가족자녀돕기 운동본부 장학금 전달식</li> <li>• 홀사모 인원 파악 및 상담 지원</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자 유가족자녀돕기 운동본부 장학금 전달식</li> <li>• 예사회(홀사모) 가을 영성수련회</li> </ul>
7. 국내 이슬람 선교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대책세미나(서울연회, 서울남연회)</li> <li>• 이슬람대책 동영상 제작 및 보급</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대책세미나(경기연회, 중앙연회)</li> </ul>



## [ 사회농어촌환경부 ]



이 승 현 목사  
(사회농어촌환경부장)

###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2025년 선교 140주년을 맞는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확장해 나가는 일에 힘써왔다. 특별히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 하였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제22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개정하고 감리교인의 삶에 새로운 실천 원칙을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신경으로 고백되는 총 11개 항의 주제는 1.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2. 가정과 성, 인구 정책, 3.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4. 자유와 평등, 5. 노동과 분배 정의, 6. 복지 사회 건설, 7.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8. 생명 공학과 의료 윤리, 9.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 사회 실현, 10. 평화적 통일, 11.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이다. 이에 사회농어촌환경부는 감리교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역에 부르심 받았음을 고백하며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5개 분야에 걸친 선교 정책을 감당하고 있다.

## 1. 사회적 약자 선교 정책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 사역의 자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의 곁이었다(마 25:31-46).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선교위원회, 농아선교위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1.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의 주요 화두에 대하여 지지와 연대의 성명서, 교회와 교단의 입장문 발표, 현장 방문 및 동행 등을 통해 약자들의 현장에 동참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슬픔과 피해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 받고 소외된 이들이 신음하고 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고,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감리회 사회신경이 고백하는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노동과 분배 정의, 복지 사회 건설 등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 2. 이주민선교위원회

이주민선교위원회는 국내이주민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와 기관 사역자들이 정기 모임 및 수시 나눔을 통해 선교 현장의 필요를 돕는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국내 거주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교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현재 감리회 안에는 53개 이주민 교회와 사역기관이 있다. 이는 감리회에 속한 6.652개 교회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이주민선교위원회에

속한 이주민 교회와 기관 사역자들은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사역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목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김봉구 목사 김수환 목사
녹번복지관	오은석 목사	목원대학교교회	김홍관 목사
평화교회(필리핀)	장성진 목사	늘사랑교회	안용원 목사
한중하나로교회	유 석 목사	국제교류관교회	이세희 목사
지구촌비전교회	안성민 목사	필그림국제교회	조은일 목사
글로벌혜말리교회	권행운 목사	회복교회	손종영 목사
인천평화교회	김인숙 목사	천안외국인교회	권종혁 목사
올네이션교회	곽문자 목사	새호성교회	유요열 목사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송연순 목사	금촌외국인노동자 선교교회	박예식 목사
라이트하우스교회	황구진전도사		
좋은벗교회	황광연 목사	열방교회	이정민전도사
일터선교교회	임행심 목사	우물교회	조세진 목사
도창교회	김주석 목사	합덕교회	김은열 목사
안산동포교회	허용지 목사	송정교회	이득선 목사
서안산시온교회	이창갑 목사	이웃사랑교회	박문규 목사
디아스포라교회	한승우 목사	사귀의교회	김상진 목사
외국인선교교회	이경민 목사	고센교회	최봉근 목사
선한사마리아인의교회	홍성후 목사	씨알교회	이철승 목사
화평교회	유해석 목사	경남이주민센터	유용수 목사 남궁희수목사
제한외국인선교교회	최 진 목사		혜광교회
열방교회	신창규 목사	복음교회	배승관 목사
세신교회	김충기 목사	충일교회	이상구 목사
전하는교회	김 철 목사	믿음교회	박민수 목사
평안교회	김달성 목사	삼달성혜교회	장 운 목사
함께하는교회	최철영 목사	쉽터교회	이민기 목사
바나바교회	유병준 목사	두레교회	김선민 목사

<표1> 이주민선교위원회 (51개)

### 3. 농아선교위원회

농아선교위원회는 농아선교의 후원과 목회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감리회 농아인 교회는 1974년 시작되었고 현재 감리회 안에 10개 연회 14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농아인선교위원회는 농아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장학사업, 농아교회연합회와의 협력 및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자인 농아인을 위한 선교적 열정을 품고 헌신하고 있다. 또한 농아인,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 주일로 지키는 ‘장애인선교주일’을 온 감리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선교주일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교 회	소 속	창 립(순)
서울농아교회	서울남 강남동	1974. 3. 3
서산농아교회	충청 서산	1983.12. 4
원주농아교회	동부 원주동	1988. 2.21
부천농아교회	중부 부천서	1990. 2. 4
주사랑농아교회	서울 은평	1993. 3. 7
좋은교회 농아부	충북 청주서	1995.10. 5
인천농아교회	중부 부평서	1997. 1.12
공주농아교회	남부 공주	1998.11. 1
영등포농교회	서울남 영등포	1999.10.31
이산농아교회	충청 온양동	2003. 6. 8
포도원농아교회	호남선교 전남동	2005. 5.27
논산농아교회	남부 논산	2006. 5.14
한려농아교회	삼남 한려	2007. 5.29
빛농아교회	삼남 창원동	2017. 1.22

<표2> 감리회 농아인 교회 현황 (14개)

## II. 북한선교 정책 및 탈북민 사역

북한선교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감당한다.

### 1. 북한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는 국내 거주 탈북민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 현재 7개의 탈북민을 위한 교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기존의 교회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교회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탈북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일꾼을 준비시키는 사역의 일환으로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연회, 감리교신학대학, One Korea, 사단법인 하늘우산, 하늘꿈학교, 남북하나재단,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와 같은 북한선교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이루며 북한 선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탈북민 선교 자료집을 발간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남과 북의 가교이자 화해자로 바라보며 북한선교를 지속해 왔다. 2024년에는 탈북민 선교 정책과 내용을 보완한 선교 자료집을 발간하여 개교회와 지방, 연회마다 탈북민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탈북민 선교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교 회	소 속
새민교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향연교회	서울남연회 영등포지방
새터교회	서울남연회 양천지방
회령교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여명교회	경기연회 화성동지방
실만한물가교회	경기연회 새광명지방
예수마음교회	중부연회 고양지방

<표3> 탈북민교회 (7개)

## 2. 평화통일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목표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감리교회 평화통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한다.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준비 및 공동기도문 작성에 참여하고, 서부연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인도주의협력사업에 동참하고, 1989년 조직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과 협력하여 평화콘서트, 통일세미나, DMZ 평화기행 등 감리교회에서 진행되는 평화통일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온 세계 감리교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세계감리교회연합회(WMC) 등 세계 감리교회와 지속적인 선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3.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는 한민족의 민족성과 함께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종교적 갈등 상황, 교회적 책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다양한 의지와 운동역량 개발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무엇보다 조직신학, 민족과 신학, 신학과 사회, 여성과 평화 등의 분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교회가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고 교회를 향한 평화통일 일치 사역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부서로는 조직신학 연구부, 민족과 신학 연구부, 신학과 사회 연구부, 여성과 평화 연구부 4개의 부서가 있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DMZ 기행, 고 박순경박사 연구세미나 개최 및 저서 출간, 평화성서학교, ‘한국교회의 통일담론’을 주제로 한 학술제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Ⅲ. 교회일치 정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시작은 1918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예수교장로회연합회가 1924년 확대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이다. 197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정교회가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교회일치운동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제1차)의 가르침에 따라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운동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강조하고 웨슬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복음적인 선교운동이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감리교회는 교회일치 운동과 선교의 선구자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부터 시작하여 양주삼 초대 총리사, 신흥우, 윤치호, 전덕기, 김활란 등을 배출하며 지난 130년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일치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감리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표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인권을 지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감리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실행위원(12명)과 대위원(42

명), 프로그램 위원(47명)을 파송하여 헌장위원회, 재정위원회, 기독교사회 봉사위원회, 신학위원회, 교회일치위원회, 종교간대화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생명문화위원회, 여성위원회, 언론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청년위원회, 남북교류협력단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해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각 교단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감리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 참여하고 전문위원, 총회대위원 등을 파송한다. 세계교회협의회에는 감리회 목사가 WCC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는 4명의 감리회 총회 대의원과 1명의 실행위원이 활동한 바 있다.

교회일치 정책은 비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여러 교단간 연합기관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24개 교단 19개 협력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지원하면서 통일, 저출산, 기후 문제 등 한국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기감, 기성, 기하성, 예성, 나성, 구세군이 참여하고 있는 웨슬리안교단장협의회의 의제에 따라 진행되는 신학 연구 및 시행 사업을 보조하고 있다.

## IV. 교회와 사회 정책

교회와 사회 정책은 교회가 세상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고백과 개인적 성회와 사회적 성화를 이루었던 웨슬리의 전통 아래 감리회가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감리회의 사회 신경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 가정과 성, 인구정책,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생명 공학과 의료윤리와 같은 시대적 당면 과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1.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

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동역자의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감리회의 총회와 연회 지방회와 개교회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한을 갖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3명의 공동위원장과 24인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여성과 관련한 의제 선정과 활동, 여성 목회자와 여신도의 교회여성지도록 발굴과 개발, 감리회의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 양성평등을 위한 장정 헌의안과 여성총대할당제 연구와 제도화, 양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 교재 발행, 목회자의 윤리 교육 커리큘럼 연구와 교회 내 성폭력 문제 근절, 여성목회자의 모성 보호, 총회의 성인지 예산 연구, 총회와 연회, 지방회, 개체교회 당회 성평등 모니터링, 감리회 출판물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과 성평등 지침서 발간 등이 있다. 매년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 총회 대표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각 연회에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입법 노력을 통해 제35회 입법총회에서 각 국 위원회에 연회 선출위원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여성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의 여성위원을 지명하는 법안, 연회 평신도 대표에 장로가 없을 시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는 법안, 진급중인 여성 교역자에게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후 3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2.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제33회 총회(2019) 입법의회에서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의되었고, 제34회 총회(2021)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규정이 신설된 후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감리회 내 교회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회내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당사자간 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제소, 교회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 및 후원활동,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분과위원회, 교회성폭력예방교육분과위원회, 회복과치유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은 교회성폭력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성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이로 우선구성하되,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자, 감리회 성폭력 교육 강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이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센터는 성폭력대책위원회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신고, 제보하고 피해 생존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결의되면서 성폭력상담센터가 만들어졌고,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성폭력상담센터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 조항 안에 세부항목이 신설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성폭력상담센터는 현재 무보수 자원상담가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각 교회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살피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하에 상담하고 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하단에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배너가 있어서 감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폭력 관련 신고, 상담을 하는 핫라인이 개설되어 운영중이며, 각 교회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살피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하에 상담한다.

## V. 농촌 및 환경선교 정책

농촌 및 환경선교 정책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다. 세상은 비단 교회 안이나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다. 현재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켰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 어촌, 산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생명과 자원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농어촌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는 농촌, 어촌, 산촌 그리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1. 농어촌선교위원회

농어촌선교위원회는 ‘농촌선교목회자회’, ‘행복중심 서로살림 농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명의 망’과 협력하여 친환경 김장 나눔과 농산물 꾸러미로 감리회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희망·평화·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농도한마당을, 농촌선교훈련원과 협력하여 농민 기본소득 및 마을 목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선교주일을 통해 농촌교회 목회자가 감리회 공동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주목회를 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교회의 자매교회 사업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운동과 장학사업 확대, 위기 관련 긴급 지원 사업과 마을목회 공모 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별히 2023년 제17회 농촌선교주일은 “햇빛 에너지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모여진 헌금을 통해서 농촌교회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 환경선교위원회

환경선교위원회는 환경선교학교, 생태목회세미나, 평신도 생태기행 등을 통해 감리회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기후위기 대처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환경선교를 선도하고 있다. 매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녹색교회를 선정하여 2023년 34개 감리회 녹색교회가 선정되었다. 기독교환경회의를 통해 환경정책을 만들어가며, 생태목회연구소를 통해 생태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 교육 및 관련 출판 업무 등

을 진행한다. 현재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생태적 삶을 열어가는 교회들」이 출판되었고, ‘성탄구유’와 함께 강림절을 보내기 위해 <성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성탄구유 키트와 교재를 제작, 보급하였다. 또한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2권이 출판될 예정이고, 목회자들의 설교와 교회사역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생태적 성서주석서인 「생태성서주석」(가칭)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연 도	교 회	소 속
2006	백석교회	중부 일산동
2007	송악교회	충청 온양동
2008	청파교회	서울 중구용산
2009	평화의교회	서울남 구로
2010	받들교회	남부 금산
	동녘교회	중부 고양
2011	동면교회	동부 홍천동
2012	오봉교회	동부 속초북
2013	기쁜교회	경기 평택동
2014	갈산교회	충청 서산
2015	완대리교회	삼남 진주
2017	광시송림교회	충청 예산
2018	가재울녹색교회	서울 서대문
	갈릴리교회	호남 여수광양
	인자교회	서울남 양천
2019	빈들공동체교회	남부 대전중부
	예수향교회	경기 평택동
	전농교회	서울 동대문
	화정교회	경기 안산
2020	산들교회	삼남 진주
	의성서문교회	삼남 경북북
	자연드림교회	충청 예산
	평동교회	서울 종로
2021	빛마을교회	삼남 경북북
	일벗교회	중부 강화북
	해남새롬교회	호남 전남서
2022	산성교회	중부 일산동
	샘터교회	삼남 부산남
	세신교회	서울남 양천
	사남교회	삼남 한려
	나우리교회	서울남 강남동
	월곡교회	서울 성북
2023	평화를만드는교회	서울 중구용산
	안골교회	충청 예산

<표4> 감리회 녹색교회 (34개)

## 사회농어촌환경부 위원회

### 1. 총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 원
성폭력대책위원회	정동준	김동우 손명희 신영희 유연기 원민경 이종화 이정숙 최소영 홍보연 황창진

### 2. 사회농어촌환경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 원
에큐메니칼위원회	이광섭	강석훈 권혁률 김준영 남누리 남재영 노혜민 박도은 은재지 권병남 김신태 안민희 재용철 이새영 추은은 신하성 상황인 근 조효호 원최소
농어촌선교위원회	김종구	김명준 김용민 김일형 노재화 박순웅 박종완 이은하 이요한 이인구 이종명 임송한 조현태 차흥도 황은경
하루100원운영위원회		노재화 차흥도 황은경
농도한마당준비위원회	최종호	김경은 김광년 김준영 남궁희수 노재화 박경양 박순배 배재석 안복규 이종명 임소희 지동흙
농촌전환사회네트워크	차흥도	김종구 서정훈 이종명 임종한
환경선교위원회	장석근	강석주 김대경 김민영 김성미 김신형 김영현 김일재 이순원 박영은 박인환 박신현 원이 임지희 홍의중
생태목회연구소	양재성	김경환 김신형 박영훈 이은경 이현우 임지희
이주민선교위원회	이창갑	오은석 우삼열 최철영 (임원)
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김신애 박승복 전남병 진광수 하성웅 황인근
양성평등위원회	한우례 홍보연 황창진	박윤옥 변영권 서정숙 손명희 이성경 이성인 이윤정 이종화 서진우 임영옥 채병선 최소영
북한선교위원회	강철호	고종수 손준호 신현수 임향자 정요섭 최태관 홍경연 손기희 최희순 김정원 서정화 정신연 최안희
평화통일위원회	박신진	곽노윤 길도원 김영대 김주한 김용택 김인숙 남기평 노혜민 류영주 박단선 방이광 송병구 양광수 노동철 윤여진 이은선 이진호 최광석 이형석 임성호 정태준 조장환 조진호 최광석 이현
농아선교위원회	정현범	강장훈 김종인 남상선 노관수 모연환 서미례 원정재 윤규한 인재수 이경원 이관혁 이태훈 서호구 조빈형 한명숙 함혜원



# 사회농어촌환경부 2024년 주요행사

## I. 녹색 연회/총회 개최

### 1. 취지

- 1) 취지 :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205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전 교단 차원의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녹색 연회/총회를 개최함
- 2) 3R 프로젝트 : Reduce Reuse Revival
  - 줄이고(Reduce) 재사용하여(Reuse) 창조세계의 부흥(Revival)을 이끄는 감리교회

### 2. 연회 준비 사항

- 1) 자료집 최소화 : 전자문서 사용, 자료집 제작시 재생용지 권장
- 2) 일회용품 줄이기 : 텀블러 지참, 생수 PET병 제공 사양
- 3) 식사는 유기농산물로 간소화
- 4) 연회 대표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또는 차량공유

### 3. 녹색연회 자료집(pdf 제작)

- 1) 주제, 성경구절
  - ①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녹색연회
  - ② 성경구절 : 창세기 1:31
  - ③ 주제가 : 새찬송가 79장, 477장, 478장
  - ④ 주제 말씀 : 녹색 연회/개최 의의 내용 포함
  - ⑤ 포스터, 현수막 예시

- 2) 예배자료 설교문(위슬리 설교문 포함 2편), 기도문, 교독문, 생태적 성만찬, 탄소헌금
- 3) 회무자료
  - 탄소중립 선언문, 탄소중립 로드맵, 녹색교회 시상, 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결의
- 4) 이벤트(연회/총회장 밖)
  - 연회장에 생태적 문화활동 전시(환경관련 도서, 그림, 사진 등), 연회장에 초록장터 운영(지역 로컬 푸드, 친환경 상품 등), 연회/총회원 문화활동(4행시 짓기 등)
- 5) 파송
  - 녹색교회로의 초대(3R 프로젝트 실천방안), 환경사역 실천 지침,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등

## II.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1. 개요

제35회 총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특별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총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고자 함

### 2. 세부사항

- 1) 급박한 환경문제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회 특별 기구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본부 임원들(선교국 총무, 교육국 총무, 사회평신도국 총무, 홍보출판국 사장)과 각 연회 총무, 각 전국 평신도 단체장(남여청청장년 청년),

전국교회학교연합회장, 선교국 환경선교위원장과 생태목회연구소장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환경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환경전문 기관과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 3)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가 주관한다.
- 4) 위원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연구하게 하고 이에 따른 감리교회의 환경 정책 및 사업을 각 연회에서 시행하게 한다.
- 5) 위원회를 통해 결의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선교국 총무가 주관하고 각 연회 총무들이 참여하는 총무단 모임이 실행의 책임을 가진다.

### 3.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감리회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 안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감독회장, 선교국위원장, 행정기획실장, 선교국총무, 교육국총무, 평신도국총무, 사무국총무, 출판국사장, 각 연회 총무, 전국남선교회장, 전국여성교회장, 전국청장년회장, 전국교회학교연합회장, 전국청년회장, 본부 환경선교위원장,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장, 환경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수시로 기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원) 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임기 첫 회의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 1인(감독회장)
- 부위원장 2인(선교국 총무 외 1명)
- 총무 1인(환경선교위원장)
- 서기 1인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로드맵 실천을 위해 조사 연구 홍보 교육한다.
- 기후 관련 정책을 생산하여 연회와 교회에 보급한다.
- 교회 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홍보, 상담하고 지원한다.
- 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 대정부, 대기업, 대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제안하고, 자문하고, 연대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연구조사위원회
- 정책교육위원회
- 홍보출판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 연구조사위원회 / 세계 감리교회의 기후정책 및 이웃 교단 환경정책을 연구한다. 아울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및 자료를 지원받고 연대한다.
- 정책교육위원회 /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한다.
- 홍보출판위원회 / 기후위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서 및 도서를 제작, 출판, 보급한다.

제8조(실행위원회)

-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 실행위원회는 임원, 각 분과위원장, 연구소장, 전문가로 한다.

제9조(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

- 감리회 기후위기 정책 및 교육을 전담하며 둔다.
- 연구소장, 책임연구원, 연구원을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연구소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 제10조(회의)

- 정기회의 :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임시회의 : 긴급 사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심의해야 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실행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총당한다. 단, 필요한 경우 후원금 및 긴급지원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사회농어촌환경부 2024년 주요 일정

분야	구분	내 용
1. 사회적 약자 선교 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이주민선교학교 - 국내 거주 선교사 대상</li> <li>• 국내이주민선교 자료집 발간</li> <li>• 국내이주민선교 세미나 개최 - 연회, 지방회, 개교회</li> <li>• 장애인선교주일 자료집 발간</li> <li>• 사회적 약자 선교 세미나(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선교 정책 세미나(장애, 인권 등)</li> <li>• 사회적 약자 선교 정책 지침서 발간</li> <li>• 장애인 선교 정책 세미나</li> </ul>
2. 북한선교정책 및 탈북자 사역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민 선교 자료집 발간</li> <li>• 평화통일 정책 세미나</li> <li>• 통일선교아카데미</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선교주일 정책 자료집 발간</li> <li>• 북한선교 정책 협의회</li> </ul>
3. 교회일치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li> <l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li> <li>• 사순절 영적순례 자료집 발간</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차 WMC총회 &lt;WMC KOREA PEACE NIGHT&gt;</li> <l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대회</li> </ul>
4. 교회와 사회 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특별위원회 성폭력 강사 예방교육</li> <li>• 사회선교기관 유관단체 정책 협의회</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회 여성총대 교육</li> <li>• 찾아가는 성탄절(사회적 약자)</li> </ul>
5. 농촌 및 환경선교 정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목회/치유돌봄 사역 자료집 발간</li> <li>• 개교회 태양광 발전소 지원</li> <li>• 구석구석 교회 시리즈 2권 『구석구석 사회적 교회 탐방』 출간</li> <li>• 환경선교주일 연합예배 및 자료집 발간</li> <li>• 녹색교회 선정</li> <li>•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녹색 연회/총회를 위한 지침서 발간</li> <li>• 환경선교주일 자료집 발간</li> <li>• 환경선교학교 - 평신도</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목회/치유돌봄 사역자 교육</li> <li>•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발간</li> <li>• 제12회 농도한마당</li> <li>• 『생태성서주석』 출판</li> <li>• 생태목회세미나 - 목회자</li> </ul>

## [ 세계선교정책부 ]



이 강 희 목사  
(세계선교정책부장)

###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오늘날 세계선교는 첨단기술과 인터넷, 교통의 발달로 인종, 문화, 언어, 국적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의 세계화가 특징이다. 또한 선교 사역의 내용을 보아도 교회개혁과 목회중심의 선교사역에서 교육과 문화, 스포츠와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사역과 비즈니스 사역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역의 내용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세계선교의 방향은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사 중심에서 선교지 중심, 현지사역자 중심으로 그리고 성장지향이나 식민지식 선교방식에서 벗어나 복음적이고 현지인 중심 자립 선교, 협력선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감리회 세계선교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선교의 변화와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여 감리회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에 알리고 하나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변화하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선교사역, 최선의 선교사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세계선교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 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선교

동력의 약화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선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선교훈련원과 선교사교육원을 통해 선교사지원자들과 파송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선교훈련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선교사역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선교사들의 복지와 자녀교육문제, 은퇴후 노후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섯째, 해외선교역사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선교국에서는 2023년 12월 22일 해외선교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 발간의 목적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를 통과한 감리교회의 세계 선교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분석 정리함으로 감리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2008년 12월 30일에 제작된 이후 15년의 해외선교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도 감리회 해외선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중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의 3축인 선교국과 선교사회 그리고 세션협과 파송교회와 한국감리교회가 긴밀하게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1. 세계선교정책연구

세계선교의 새로운 필요와 상황을 분석하여 감리회 세계선교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선교지역의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정책과 선교후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연합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화하고자 한다.

### 1. 세계선교 전략회의 (권역별, 나라별)

감리회 파송 선교사는 12개 권역, 81개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 세계선교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나라별 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다. 2023년 중동·북아프리카 전략회의를 하였고, 올해는 중남미 권역과 아프리카권역 선교전략회의를 갖고자 한다.

## 2. 선교사 교육원

선교사 교육원(이사장-박명홍 목사, 원장-곽주환 목사)은 2023년 6월 30일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계속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교사역을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선교사 교육원은 트랙별로 운영되는데, 1트랙(5~10년차)은 선교사역 점검 및 전략개발, 2트랙(11~20년차)은 리더십개발 및 자기관리, 3트랙(21년차 이상)은 선교지 출구전략 및 은퇴계획을 중점으로 다룬다. 국내 트랙과 해외 트랙을 병행하고, 격년마다 전체 선교사를 대상으로 멤버케어, 성경신학, 비즈니스, 창업, NGO, 예수동행일기, 기도운동 등의 특별 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교사 교육원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한 5-DAY 영성형성아카데미’, ‘초임선교사·은퇴선교사를 위한 훈련’, ‘자립선교를 위한 BAM 교육’, ‘선교사를 위한 디브리핑’, ‘이주민사역자 훈련’ 등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 3. 선교사 재배치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의 재배치 원칙을 수립하여, 필요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같은 효과적 재배치를 위해서는 선교지 상황파악(변화된 비자정책, 이민정책, 종교 및 경제 상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1) 선교지마다 선교사회(5가정 이상)가 구성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다.
- 2) 선교지 집중화를 피하고 다변화를 위해 선교훈련원 단계부터 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파송교회에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 4. 자립선교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수립

2023년 11월 27일 창립된 자립선교회(이사장 - 박동찬 목사, 회장 - 어성호 선교사)와 협력하여, 선교사들의 자립선교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텐트메이커 스쿨(BAM교육)을 개설하며, 전문인 선교사를 육성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

#### 5.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합의된 지침과 실행 방안 모색

선교국은 2024년 2월 23일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최 이유는 첫째, 23.8.21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한국교선)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논의하여 발표했던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이양 정책을 위한 공동 결의서>의 영향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는 제35회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의 재판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중 9항 :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 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단에서 교역자의 범과로 다루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대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이양을 시행해야 한다.

- 1)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선교국과 파송교회와 세션협, 선교사회 공동 주관
- 2) 선교지 재산의 전수조사 - 선교사 보호와 안전장치 마련

## 6. 연회와 함께하는 단기선교세미나

단기선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며 세계선교를 위한 헌신자를 세우는 중요한 통로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중단되었던 단기선교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처음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이에 선교국 중심으로 본부에서 이루어져왔던 단기선교 세미나를 연회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하여 도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선교자원개발양성정책

다양한 선교사 지원자 및 선교사를 발굴 동원하기 위해, 연회와 교회와 9개의 선교훈련원과 선교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선교동원이 어려운 시대이기에 선교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 1. 선교사 지원자 본부집중훈련 강화

2023년 하반기 선교훈련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본부집중훈련을 4박 5일에서 8박 9일로 확대하고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여 훈련함으로써,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실제적인 맞춤형 선교훈련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 2. 감리회 선교훈련원(9개 위탁훈련원)의 역할 강화

- 1) 모든 선교훈련원이 연회 인준기관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감리회 선교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공통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훈련원간의 격차를 줄이고 감리회 선교훈련이 같은 방향으로

로 나아가도록 한다.

- 3) 상·하반기 선교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선교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3. 선교동원을 위한 교회와의 협력

선교 동원의 원천은 교회이고, 선교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은 선교동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1) 선교사 파송교회 및 모든 교회에 선교 정보 공유 - 감리회 선교사를 파송한 460여 교회들과 모든 교회들에 선교지 정보 및 변화하는 선교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선교동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 2) 움직이는 선교학교(MMS)를 통한 선교동력화 - ‘움직이는 선교학교’는 MMTC 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개 교회의 요청에 따라 선교훈련학교를 개설하고 교회 상황에 맞게 선교학교를 운영한다. MMS(Mobile Mission School)를 요청하는 교회를 찾아내어 선교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선교하는 교회로의 방향전환을 도움으로 선교 동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4. UMC GMF 사역 협력

UMC의 해외청년선교사 GMF 사역에 협력하고자,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홍보 및 선교사 파송교회 공문발송 및 홍보 요청,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잠재적인 선교사를 헌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III. 세계선교 홍보활성화 정책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81개국 1,292명의 선교사와 44개국 197개 한인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지와 한인 목회자들의 소식과 다양한 선교 정보들을 종합, 정리하여 세계선교 정보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또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교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홍보함으로써 감리회 세계선교 역사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

1. 감리회 세계선교 전략 가이드북 제작
2. 세계한인선교센터 정보자료집 제작
3. 선교동원을 위한 브로셔 ‘선교사가 되는 길’ 제작
4. 선교 연력 및 세계선교현황 포스터 제작

### IV.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동력화하고 활성화하여 해외 한인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자립형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실질적·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국내외 선교전략팀을 네트워크화하여 총체적이고 집약적인 협력 모체로 서로 상생하는 맞춤형 성장프로그램과 해외 한인교회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 1. 세계 한인교회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 한인교회를 홍보하고 네트워크함으로써 국내외 선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원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활성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 1) 인적자원 교류 채널 조직 (유학생, 언어연수생, 주재원, 장·단

- 기 출장자, 여행자 등)
- 2) 한국교회와 선교지 한인교회 연계
- 3) 미자립 세계한인교회 지원 프로젝트 개발 (1개 지방회 / 1개 교회 자매결연 운동)

## 2. 세계 한인교회 활성화 방안 및 부흥전략 모색

새로운 선교 비전을 품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재조명해 봄으로, 리더십 개발과 다양한 목양 프로그램 개발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역동적인 한인교회로 부흥, 성장하도록 돕는다.

### 1) 지역별 세계한인교회 목회세미나 개최

코로나19 이전에는 매해 아시아권 한인교회 목회세미나와 오세아니아권 한인교회 목회세미나를 개최하였지만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목회세미나를 2024년부터 다시 개최하여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아시아권 한인교회 목회세미나를 10월 14~17일에 필리핀에서 갖고, 한인교회 부흥 전략을 제시하고 영적부흥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2) 연회 선교지방 전략회의

현재 연회별 선교지방은 서울남연회 남태평양지방회와 호주선교지방회, 중앙연회 유럽지방회, 동부연회 남미선교지방회, 남부연회 캐나다지방회, 삼남연회 필리핀선교지방회가 있다. 연회와 협력하여 전략회의를 통해,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계선교정책부 위원회 조직 및 구성

### 1. 세계선교정책위원회 (가나다순)

구 분	성 명	소속교회
위원장	장성현 목사	중부/인천서/인천공항교회
위원	권오훈 교수	목원대학교 선교학
	이동성 목사	서울남/송파/아멘교회
	장성배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전석범 목사	남부/대전동/가양교회
	정복성 목사	중부/인천동/가좌교회
	최금석 목사	경기/수원권선서/금곡교회
	최만호 목사	중부/부평동/소명교회
	황병배 교수	협성대학교 선교학
	현철호 목사	서울/강북/백운교회

### 2. 선교훈련정책위원회

구 분	원 장	훈련원명
위원장	장성현 목사	웨슬리선교훈련원
위원	박창현 교수	감신대선교훈련원
	송덕용 목사	목원대선교훈련원
	김종환 목사	협성대선교훈련원
	남근형 목사	인천세계선교훈련원
	강연희 목사	MMTC선교훈련원
	장진희 목사	국제선교훈련원
	안창원 목사	동부선교훈련원
	정승호 목사	미주선교훈련원

# 세계선교정책부 2024년 주요 일정

## I. 2024년 주요 행사

### 1. 선교 네트워크 구축

- 1) 선교국, 파송교회, 선교사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감리회 홈페이지 활용)
  - ① 「세계선교를 위한 매일의 기도」
    - a. 권역별·나라별 기도제목
    - b. 선교사 기도제목
    - c. 긴급 기도요청
  - ② 81개국 선교지 소개
  - ③ 선교 소식 나눔 - 선교국, 세선협, 선교사회, 선교훈련원
  - ④ 선교 정보 센터 운영
    - a. 선교지 선교센터
    - b. 국내 선교사 복지 정보
- 2) 선교국 유튜브 채널 - 선교관련 정보와 자료 센터로 운영

### 2. 세계선교정책부 선교훈련 프로그램 강화

- 1) 9개 선교훈련원의 체계적 전문적 훈련 시스템 구축
  - ① 보다 전문적인 선교훈련이 되도록 훈련과목 개설
  - ② 실제적인 현지적응훈련 프로그램 구축
- 2) 선교사교육원 1기 트랙
  - ①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7일(수)
  - ② 장소 :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 ③ 참석대상 : 파송선교사 트랙별 15명씩



3) 2024년 선교사 지원자 본부집중훈련

- ① 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 7월 2일(화)
- ② 장소 : 광림세미나하우스
- ③ 참석대상 : 선교사 지원자

4) 아시아권 목회자세미나

- ① 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17일(목)
- ② 장소 : 필리핀
- ③ 참석대상 : 아시아권 한인교회 목회자, 선교사

### 3.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공청회

- 1) 목적 :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합의된 지침 및 실행 방안 모색
- 2) 일자 : 2024년 7월 23일(화) [예정]
- 3) 장소 : 본부교회
- 4) 참석대상 : 선교국, 파송교회 목회자 및 세션협, 선교사회 등

## II. 주요 일정 및 계획

일별	주요 업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선교국, 세선협, 선교사회</li> <li>• AWMC 거주 선교사 환대</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상반기 세계선교정책위원회</li> <li>• 선교지재산 관리 및 이양 정책 세미나</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상반기 선교훈련정책위원회 : 3월 14일 (MMTC선교훈련원)</li> <li>• 선교사 교육원 트랙 운영 : 3월 25일(월) ~ 27일(수)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완성)</li> <li>• MMS 선교학교 협력 회의</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회와 함께하는 단기선교 세미나</li> <li>• 중남미권역 선교전략회의(Zoom)</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선교사지원자 본부집중훈련 : 6월 24일(월) ~ 7월 2일(화)</li> <li>• 해외한인교회 현황 조사 및 네트워킹 시스템 개발</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공청회 (7.23[예정])</li> <li>• 선교지 출구전략 및 은퇴계획 세미나</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하반기 세계선교정책위원회</li> <li>• 해외현지적응훈련 - 웨슬리선교훈련원</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하반기 선교훈련정책위원회</li> <li>• 텐트메이커 스쿨 운영 (5주간)</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회 아시아권 한인목회세미나 (필리핀)</li> <li>• 아프리카권역 선교전략회의(Zoom)</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 동원을 위한 브로셔 제작 - “선교사가 되는 길”</li> <li>• 연회와 함께하는 해외한인교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 연력, 세계선교현황 포스터 제작</li> </ul>

## 감리회 선교훈련원 현황

2023.12.31 기준

훈련원명	원장명	담당자명	주소 및 연락처	훈련과정
감신대 선교훈련원	박창현교수	전사하교수 김미애간사	0374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02)361-9237~38(O)/361-9002(F) <a href="https://blognaver.com/mtulife20">https://blognaver.com/mtulife20</a>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19:00~22:00)
목원대 선교훈련원	송덕용목사	이기형목사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042)829-8251 <a href="http://www.mumtc.kr">www.mumtc.kr</a>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14:00~21:00)
협성세계 선교훈련원	김종환목사	김용식목사	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세계선교훈련원 031)299-0724(O)/227-2396(F)	1년 과정 매주 화요일 (18:00~21:00)
인천세계 선교훈련원	남근형목사	박성일목사	22238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길 136 인천성서신학원 내 032)428-8660(H)/032)427-7837(F)	1년 과정 매주 화요일 (18:30~21:30)
M M T C 선교훈련원	강연희목사	김혜진간사	131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7 경인빌딩 501호 070-8630-4033(O) <a href="http://cafe.daum.net/mmtc">http://cafe.daum.net/mmtc</a>	1년 과정 1학기 매주 월요일 (13:40~21:00) 2학기 매주 월/목 (14:00~18:00)
국 제 선교훈련원	장진희목사	박성천목사	0772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55 3층. <a href="http://www.omegamissions.org">www.omegamissions.org</a> 02-2608-7848	1년 과정 매주 토요일 (10:30~14:30)
웨 슬 리 선교훈련원	장성현목사	강희욱목사 박병호목사	21505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549 3F 032)421-4431(O)/429-4432(F) 0125037@hanmail.net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18:30~21:30)
동 부 선교훈련원	안창원목사		24227 춘천시 사우로154번길 13(우두동) 033-251-5922	
미 주 선교훈련원	정승호목사		Henry Appenzeller University (attn /MTCA)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91711 1-703-473-4696	1년 과정 집중훈련 2회 온라인 코스 매주 월요일

## 해외 한인교회 현황

2023.12.31 기준

지역	나라명	총계	지방구분		지역	나라명	총계	지방구분	
			선교지방	개척지방				선교지방	개척지방
동북 아시아	일본	1	0	1	북미	미국	56	0	56
	중국	3	0	3		캐나다	21	19	2
	계	4	0	4		계	77	19	58
동남 아시아	말레이시아	3	0	3	중남미	멕시코	1	1	0
	싱가포르	3	0	3		자메이카	1	1	0
	인도네시아	2	0	2		아르헨티나	6	6	0
	필리핀	15	14	1		파라과이	2	2	0
	계	23	14	9		브라질	1	1	0
인도 차이나	태국	2	0	2	칠레	1	1	0	
	베트남	1	0	1	계	12	12	0	
	라오스	1	0	1	동유럽	불가리아	1	1	0
	계	4	0	4		폴란드	1	1	0
서남 아시아	인도	1	0	1	계	2	2	0	
	계	1	0	1	서유럽	영국	11	11	0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1	0	1		독일	19	19	0
	계	1	0	1		이탈리아	5	5	0
중동	튀르키예(터키)	1	1	0		네덜란드	1	1	0
	U.A.E	1	1	0		프랑스	2	2	0
	계	2	2	0		오스트리아	3	3	0
오세 아니아	뉴질랜드	18	18	0		스위스	1	1	0
	호주	10	10	0		아일랜드	0	0	0
	마셜제도	1	1	0		계	42	42	0
	계	29	29	0		11개 권역 / 34개국 / 197개 교회(공석14개) / 교역자 208명			

## [ 세계선교사역부 ]



남 수 현 목사  
(세계선교사역부장)

###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감리교회가 세계선교에 더욱 주력하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교사(현장)-본부-파송교회 삼자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선교사역부서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선교사를 선발하고, 선교사가 사역을 실행하고 그 결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선교현장과 파송교회 간의 선교비전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1. 선교사관리업무

현재 81개국 1,292명(2023년 12월말 현재)의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인사 및 사역관리를 위해 산하에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현장에는 나라별 선교사회 및 12개 권역별 선교사회를 두어 상호 긴밀하

게 협력하고 있다. 선교사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교사를 장려하되, 선교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1. 나라별선교사회와 권역별선교사회의 역할

선교국은 나라 혹은 동일 권역 내에서 선교사 개인의 사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행정지도 및 선교보고, 선교전략 연구, 선교정책 생산 및 연합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나라별, 권역별 선교사회를 구성한다. 나라별선교사회는 최소 5가정 이상을 갖추어 구성할 수 있으며 선교사 간의 교제와 정보 교류 및 선교사의 전출에 관한 보고 및 관리의 역할을 갖는다. 반면 권역별선교사회는 지역적 구분을 통해 선교지를 권역으로 나누어 조직할 수 있으며, 지역과 동일문화권 선교에 대한 선교정책 및 전략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선교사 81개 파송국가 중 나라별선교사회는 27개 국가에 조직되어 있으며 12개 권역별선교사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 2.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역할

본부 선교국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성실 복무와 규정준수를 관할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세계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석재 목사)를 조직하고, 매년 2차례의 회의 소집을 통하여 선교사의 선교지 이동 및 이탈, 안식년과 소속교회 이동, 사직과 재파송 등에 대한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특별히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는 선교사가 임기 중 임의로 선교지를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안식년과 병가 이후 장기간 선교지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선교사의 파송의무 기간(4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규정을 위반한 선교사에 대해 자격을 심의하고 최종 소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3. 새롭게 부상되는 감리회 선교사관리에 관한 이슈들

감리회의 선교사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은 선교사의 선교지 체류와 이탈에 관한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되는 선교지 상황은 선교사의 지속적인 체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정치, 문화, 종교 등을 수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선교사의 비자 취득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감리회가 지금까지 선호해온 “정주 선교사”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명확한 예시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며, 언급된 세 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뤄지고 있다. 비자발적 철수의 경우, 현지의 사역을 완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우회적인 또는 제3의 방법을 통하여 사역을 연속할 것인가, 철수한 선교사의 재배치는 언제, 어떻게 이를 것인가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교국은 규정과 세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되 선교지의 변화된 상황과 효율적인 선교사역의 형태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선교사관리를 하도록 선교현장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II. 선교지개발 및 파송업무

선교국은 매년 2회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성웅 목사)를 통해 신입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한다. 문화적, 사회적 소양을 갖춘 양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축적하고, 새롭게 부상되는 선교적 이슈들과 사역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현지의 선교사회 아니라 현지감리교회와도 긴밀하고 소통하고 있다.

## 1.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요건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는 선교사의 영성관리, 소명, 선교재정과 계획, 심신의 건강관리와 언어의 준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는 1년 동안의 선교훈련을 거치면서 자기의 소명을 뚜렷이 하고, 중보기도자와 후원자를 모집하여 재정과 선교계획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할 뿐 아니라 현지선교사회와 소통하면서 향후 사역을 계획하고 조언을 받아야 한다.

## 2. 선교사 파송의 감소 추세와 선교동원의 과제

감리회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사 파송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70-80년대의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88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인식의 고조와 같은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감리회의 선교사 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이르러 파송선교사 1천명의 시대를 열었고,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선교사 파송이 매년 100여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선교사 파송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은 단 12명의 신입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러나 2023년 코로나의 종식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증가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낙관하기 어렵다. 첫째로 개체교회의 경제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악화되고 위축된 부분, 둘째 감리회 위탁선교훈련원의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 셋째, 선교지 국가들의 비자 제한 사례의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 3. 선교사 파송을 위한 인식의 전환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장기비자의 취득여부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요청된다.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지 구별, 즉 파송을 지양하는 선교지와 반대로 지향하는 선교지의 구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파송에 있어서 선호하는 나라와 기피하는 나라, 파송 집중 국가와 선교사 희소 국가, 발



전국가와 미개발국가, 선진국과 최빈국 등과 같은 구분이 아닌 사역의 지속가능성과 선교사의 장기 체류가 보장되는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현지교회의 초청(invitation)과 선교협력(mission collaboration), 둘째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임선교사와의 협력, 셋째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 제자훈련의 사역이 아니라 전문인선교, 문화선교, 비즈니스선교의 개발과 검토이다. 위의 대안들은 모두 독립적이고 즉각적인 사역의 이행보다는 협력을 위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숙고와 언어, 기술, 자격증 등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Ⅲ. 선교사역개발업무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약 66%는 주로 목회와 관련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비자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현지교회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목회, 교회개척 등 전통적인 선교사역이 점점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평신도선교, 비즈니스선교, 문화선교, 교육 및 복지선교 등 다양한 선교사역의 개발을 통해 선교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1. 감리회 선교사의 사역 분포 (2023년 12월말 현재)

사역내용	가정수	분 포
현지교회와 협력, 현지목회	205	27.6
전방개척사역	110	14.8
제자훈련 및 지도자양육	108	14.5
교육선교(유치원, 초중고학교)	77	10.3
신학교 사역	43	5.8
비즈니스선교	32	4.3
한인교회	27	3.6
어린이 청소년 사역	28	3.7
난민선교	16	2.1
복지 및 사회봉사, 지역개발	14	1.8
선교동원	13	1.7
문화선교	12	1.6
의료선교	7	0.9
MK사역	4	0.5
사역중단 (이임, 병가, 안식년, 가족소천)	15	2.0
언어훈련	21	2.8
기타	10	1.3
합계	742	100%

## 2. 전통적인 목회 중심의 사역에 대한 평가

감리회는 교단선교부의 특징을 따라 선교사의 2/3가 목회관련 사역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선교사의 54%가 교역자 선교사라는 점과 감리회가 전통적으로 교회개척과 목회 중심의 사역을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특별히 감리회가 현지목회 사역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현지의 감리교회의 조력을 통하여 협력하는 구조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이미 단일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경우가 많고, 세계적인 감리교회의 네트워크가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경향이 있다. 세계의 해외감리교회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하는 것은 선교사의 체류를 보장하고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별히 현지에 감리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 감리회 파송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신화와 맞물려 목회와 전도에 대한 열심과 헌신, 희생과 개척 정신, 타고난 근면성을 인정받아 현지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을 메꾸고 전방개척 사역을 전담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감리교회가 세계의 감리교회와 달리 파송제를 포기하여 감독의 권위와 파송권이 약화되고, 반면 개체교회 중심으로 목회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선교사가 개체교회 중심의 사역을 이어다가 보니, 현지 리더십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아 한국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왔다. 개체교회 중심의 선교적 방식은 또한 선교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 중복적인 투자, 성장주의, 물량주의에 따른 폐해와 더불어 현지교회와 현지 지도자의 분열을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3. 변화하는 선교환경과 전문인선교, 비즈니스선교, 사회구호(NGO)사역에 대한 재고

세계적인 선교지형은 점차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개종과 포교를 기반으로 한 직접선교가 어려워지는 형세이다. 많은 나라의 경우 선교사비자, 종교비자의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아예 선교사비자, 종교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분류된 공산권과 무슬림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인선교, 비즈니스선교, 각종 사회개발과 구호선교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보와 준비, 시간과 자원의 투자, 각종 자격증의 취득과 적합한 경력사항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비목회적인 사역은 전통적인 목회사역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거나 폄하되었다. 그러나 선교지형의 변화는 새로운 사역의 개발과 감리교회의 인식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 IV. 선교단체 및 후원교회 지원, 선교사자녀장학업무

500여 개의 선교사 파송교회와 감리교회의 유일한 선교단체협의회의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협력하면서, 6,722개 감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이로써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도록 각 선교단체 및 후원교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업무의 목적이다.

### 1.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의 활성화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회장 진인문 목사)는 1989년 국외선교협의회로 출범한 이래 총회 인준의 유일한 선교단체협의회로서 감리회 선교단체와 파송교회를 대변하여 선교국과 협력하는 기관이다. 현재 90여개의 선교단체와 파송교회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격년마다 감리교세계선교사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매년 권역별선교사대회와 여선교사대회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매년 감리회 파송 선교사 성탄선물 보내기 사역과 선교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2021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구 인우학사를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봉헌하는 일에 헌신한 바 있다.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감리회의 뿌리 깊은 개체교회 중심의 선교를 극복하고 세계선교에 선교단체와 파송교회가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 온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2. 선교사 파송교회의 확대 - 500개 교회에서 1천 개 교회로

현재 6,722교회 중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500개 교회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전체교회의 6%에 해당한다. 해외선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감리회 전체 교회 중 선교사 파송교회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 파송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파송교회 숫자가 단지 6%에 미치지 않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여러 방면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파송교회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감리교회가 선교적 소명과 비전을 확고히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 파송에 헌신하고 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22개의 교회가 감리회 선교사 파송 초기부터 30년 이상을 한 선교사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통하여 파송을 지속하고 있으며, 5가정 이상을 파송한 교회도 22개에 이르고 있다. 선교사 파송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축복의 증인으로서 세계선교를 지속하고 있다. 본부 선교국은 세계선교에 헌신한 모범적인 교회들을 발굴하고, 세계선교가 어떻게 신앙공동체를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계발하여 감리교회의 1천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희망한다.

### 3. 선교사자녀자녀장학재단

파송 선교사 732가정의 선교사 자녀는 1,012명에 이르며, 교육비용이 높아지는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연령의 자녀는 전체의 31%에 이른다. 2009년 창립된 선교사자녀장학재단은 2023년 14기에 걸쳐 누적 장학생 395명에게 총 6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한 은퇴교역자의 헌신으로 시작한 장학재단이 현재의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 선교사자녀장학재단 누적 장학생 및 장학금

년도(기수)	장학생(명)	장학생(구분)	금 액(원)
2010년(1기)	21	중·고 10 / 대학 11	35,170,400
2011년(2기)	22	중·고 10 / 대학 12	36,246,500
2012년(3기)	19	중·고 8 / 대학 11	32,721,127
2013년(4기)	20	중·고 8 / 대학 12	34,627,824
2014년(5기)	11	중·고 6 / 대학 5	17,092,000
2015년(6기)	32	중·고 9 / 대학 23	58,113,939
2016년(7기)	26	중·고 8 / 대학 18	50,032,420
2017년(8기)	29	중·고 7 / 대학 22	50,750,000
2018년(9기)	32	중·고 10 / 대학 22	52,568,000
2019년(10기)	39	중·고 8 / 대학 31	66,000,000
2020년(11기)	33	중·고 10 / 대학 23	52,000,000
2021년(12기)	40	중·고 13 / 대학 27	67,000,000
2022년(13기)	36	중·고 10 / 대학 26	62,000,000
2023년(14기)	35	중·고 10 / 대학 25	60,000,000
2024년(15기)	41	중·고 12 / 대학 29	70,000,000
계	395	중·고 139 / 대학 297	744,322,210

V. 국제선교협력업무

감리회의 국제선교협력의 주요 파트너는 연합감리교회(UMC)와 영국감리교회를 비롯한 해외의 감리교회로서 한국 감리회는 인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해외 감리교회와 선교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있으며, 이런 선교협약은 선교협력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현지 개체감리교회와의 교류를 넘어서 세계적인 감리교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감리교협의회의(Asian Methodist Council)와 세계감리교협의회의(World Methodist Council)로 나뉜다.

## 1. 해외교회와의 선교협약체결과 선교협력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구권 감리교회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10개의 해외감리교회와 공식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감리교회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호주와 일본 등 연합교회(Uniting Church)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감리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라면 비록 문서상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선교협력, 즉 한국 선교사의 파송을 수용하고 로컬 단위의 협력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외교회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이다. 선교사는 현지교회의 권위와 문화를 인정하고, 파송받은 교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반면 선교사를 수용한 현지의 교회는 선교사에게 정당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양 교회는 상호 간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다.

## 2. 아시아감리교협의회와 세계감리교협의회

아시아감리교협의회(회장 고든 윙 감독, 싱가포르감리교회)는 2002년 출범한 아시아 감리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아시아의 13개 감리교회가 그 회원교회로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6월 제1차 아시아감리교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대회를 연 이후, 매3년마다 대회(총회)로 모이고 있다. 또한 총회와 별도로 매년 아시아감독회의와 아시아감리교협의회 실행부위원회로 모인다. 제6차 아시아감리교대회가 2024년 2월에 홍콩감리교회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반면 세계감리교협의회(회장 박종천 박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국제적 단위에서 감리교회 간의 협력과 협의를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881년에 창립되었다. 1951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다 그 이후로는 5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22차 세계감리교대회가 2024년 8월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세계감리교협의회는 132개 국가의 80여 회원교회 8천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연합감리교회(UMC)의 현안과 과제들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가 2024년 4월 말 총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GMC(Global Methodist Church)로 분리되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UMC 지역교회들이 GMC로 이탈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UMC 3만개 교회 중의 7천개 교회가 GMC로 옮겨갔으며, 미국 내 100대 교회 중 26%가 UMC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미연합감리교회의 변화는 선교적으로 큰 도전이다. 동유럽,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UMC 해외연회와 교회들이 그간에 도움을 받았던 UMC를 떠나 새로운 선교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한국감리교회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선교적 과제는 어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를 넘어 우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이런 변화와 분열이 오히려 세계선교를 위축시키고, 다양한 피선교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선교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감리회의 선교적 행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세계선교사역부 위원회 조직 및 구성

### 1.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2023년 12월 말 현재, 가나다순)

구 분	성 명	소속교회
위원장	장석재 목사	삼남/부산서/불꽃교회
위원	박영식 목사	경기/화성중앙/병점상동교회
	신현구 목사	남부/대전유성/유성교회
	이근희 목사	중부/인천북/서광교회
	이인선 목사	서울/마포/열림교회
	차재일 목사	서울/중구용산/광희문교회
	최범선 목사	서울/동대문/용두동교회
	최용태 목사	서울남/강서/오곡교회

### 2. 선교자자격인준심사위원회 (2023년 12월 말 현재, 가나다순)

구 분	성 명	소속교회(기관)
위원장	* 원성웅 목사	서울/노원/옥토교회
위원	김진홍 목사	서울/서초/수표교교회
	* 박상철 목사	중부/인천동/예일교회
	변종태 목사	충북/청주남/온누리교회
	신용대 목사	중부/인천남/하늘꿈교회
	이상훈 목사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이후천 목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교
	* 현인호 목사	서울/성북/돈암교회

\* 표시는 2024년 연회를 맞이하여 은퇴하는 위원이다.

신임위원 : 김종환 목사(서교교회), 김태원 목사(한빛교회), 이기철 목사(응암교회)

- 2024년 하반기부터

# 세계선교사역부 2024년 주요 일정

## 1. 국제선교협력 관련 일정

대 회 명	일 정	장 소
제6차 아시아감리교대회(AMC)	02.26 ~ 03.01	홍콩
연합감리교회(UMC) 총회	04.23 ~ 05.03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제22차 세계감리교대회(WMC)	08.13 ~ 08.18	스웨덴 고센버그
Global Methodist Church 총회	09.17 ~ 09.27	코스타리카

## 2. 부서 주요 일정 및 계획

일별	주요 일정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은퇴 선교사 공지 및 안내</li> <li>•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심사</li> <li>• 나라별선교사회 연례보고서 접수</li> <li>• 선교사자녀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위원회</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 면접심사</li> <li>•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li> <li>• 선교사자녀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li> <li>• 제6차 아시아감리교대회 (2.26-3.1, 홍콩)</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 국내이주민선교사 교육 및 연대회의</li> <li>•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정기모임</li> <li>• 일본선교사대회 (3.11-13, 일본)</li> <li>• 캄보디아선교협력라운드테이블미팅 (3.14-15, 캄보디아)</li> <li>• 한미라오스선교협력회의(3.18-19, 라오스)</li> <li>• 한미베트남선교협력회의(3.20-21, 베트남)</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li> <li>• 나라별 선교사회 회장단 연례회의</li> <li>• 초임 선교사 행정교육 및 간담회</li> <li>• 여선교사대회 (4.15-18, 제주도)</li> <li>• 몽골선교30주년기념대회 (4월 중)</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몽골선교협력회의(5월중, 몽골)</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정책협의회</li> <li>• 상반기 선교사 정기보고서 접수</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감리교협의회 한국대의원 사전 준비회의</li> <li>• 선교사 부모교육 세미나</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학 진학 선교사 자녀 현황 전수 조사</li> <li>• 제22차 세계감리교대회 (8.13-18, 스웨덴)</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심사</li> <li>•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정책세미나</li> <li>• 인도차이나권역선교대회 (9.24-26 예정)</li> <li>• 캄보디아감리교회 임시연회 (9월 중)</li> <li>• GLOBAL METHODIST CHURCH 총회 (9.17-27, 코스타리카)</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임원수련회</li> <li>• 하반기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식년 선교사 간담회</li> <li>• 선교사성탄선물보내기 사업 공지 및 모금</li> <li>• 감리회세계선교사회 확대임원회의 (11월중)</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총회</li> <li>• 선교사자녀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지</li> <li>• 하반기 선교사 정기보고서 접수</li> <li>• 스리랑가선교사회수련회 (12월 중)</li> <li>• 필리핀선교50주년기념대회 (12월 중)</li> </ul>

## KMC 파송 선교사 현황 (2023년 12월 31일 현재)

지역	나라명	가정인원	지역	나라명	가정인원	지역	나라명	가정인원	
동북아시아	대만	17 / 30	서유럽 북미	영국	1 / 1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1 / 2	
	몽골	18 / 29		프랑스	1 / 2		마다가스카르	3 / 4	
	일본	51 / 88		<b>계</b>	<b>2 / 3</b>		시에라리온	1 / 1	
	A국	74 / 129		미국	11 / 21		부르키나파소	1 / 2	
	한국 <small>(국내이주민선교사)</small>	2 / 2		캐나다	3 / 6		짐바브웨	1 / 1	
	<b>계</b>	<b>162 / 278</b>		<b>계</b>	<b>14 / 27</b>		<b>계</b>	<b>72 / 123</b>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35 / 66	중남미	멕시코	5 / 10	중동 /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2 / 4	
	싱가포르	4 / 7		과테말라	3 / 5		튀르키예	11 / 18	
	인도네시아	29 / 51		니카라과	2 / 3		모리타니아	1 / 1	
	필리핀	73 / 130		도미니카공화국	2 / 3		모로코	2 / 3	
	<b>계</b>	<b>141 / 254</b>		쿠바	4 / 8		요르단	4 / 6	
인도차이나	태국	45 / 84		에콰도르	3 / 6		레바논	1 / 2	
	캄보디아	38 / 68		파라과이	4 / 7		U.A.E	1 / 2	
	베트남	14 / 27		아르헨티나	1 / 2		오만	1 / 2	
	미얀마	13 / 22		페루	2 / 3		튀니지	1 / 2	
	라오스	23 / 40		칠레	1 / 2		이집트	4 / 7	
	<b>계</b>	<b>133 / 241</b>		브라질	2 / 3		<b>계</b>	<b>28 / 47</b>	
서남아시아	네팔	24 / 42		볼리비아	2 / 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 / 3
	방글라데시	8 / 13		<b>계</b>	<b>31 / 55</b>			솔로몬군도	1 / 2
	스리랑카	16 / 28	에티오피아	1 / 1	호주	9 / 16			
	인도	32 / 55	남수단	1 / 2	피지	4 / 8			
	파키스탄	6 / 12	케냐	11 / 20	사이판	1 / 2			
	<b>계</b>	<b>86 / 150</b>	탄자니아	11 / 16	<b>계</b>	<b>17 / 31</b>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7 / 14	우간다	4 / 7	81개국 / 732가정 / 1,292명				
	키르기스스탄	9 / 16	르완다	3 / 5					
	타지키스탄	3 / 5	부룬디	1 / 2					
	<b>계</b>	<b>19 / 35</b>	잠비아	5 / 8					
러시아 / 동유럽	러시아	13 / 24	남아프리카공화국	12 / 21					
	루마니아	4 / 6	레소토	1 / 2					
	아르메니아	1 / 2	모잠비크	5 / 10					
	헝가리	1 / 2	에스와티니	1 / 2					
	우크라이나	2 / 4	말라위	3 / 5					
	불가리아	2 / 4	세네갈	3 / 6					
	조지아	4 / 6	토고	2 / 4					
	<b>계</b>	<b>27 / 48</b>	가나	1 / 2					



## [ 선교행정부 ]



문 희 인 목사  
(선교행정부장)

###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감리회 선교사의 파송 역사는 ① 해외선교의 길을 개척하는 시기(1902년~1960년), ② 본격적인 해외선교를 시작하는 시기(1961년~1988년), ③ 전세계로 선교를 확장하는 시기(1989년~현재)로 구분된다. 선교가 시작되고 전세계로 확장이 되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긴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모두 2,2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왔고, 현재 81개국 1,292명(2023.12.31 기준)의 현직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선교 확장을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의 수가 많아지고, 파송된 선교사의 사역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로 선교사의 건강과 의료, 복지와 노후대책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이는 파송 교회와 본부 선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2014년 본부 선교국에 선교사후원복지부가 신설되었고, 제31회 총회에서는 매년 11월 두 번째 주일을 선교사복지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선교사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선교사후원복지부는 선교사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선교 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맡은 부서로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선교사 위기상황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세계선교기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하여 선교사의 위기관리 및 복지를 위한 교회부담금에 관한 운용과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의 선교행정부는 제34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2022년부터 선교사후원복지부를 폐지하고 선교행정부를 신설하게 하고, 선교행정의 업무와 선교사후원복지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선교행정의 업무

선교행정의 업무는 본부 선교국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진 주요 선교 정책을 통해 선교국 각 부서의 장단기 정책과 사업, 회계 전반의 예결산 사업과 과제 등을 이루어 가는 업무를 말한다. 아울러 교단이나 선교 단체, 비정부기구, 선교연합회와 관련한 대외협력의 업무, 선교국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한 선교국의 전반적인 홍보 업무가 이에 속한다.

### 1. 주요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로 회의를 위해 미리 제작, 배부하는 자료집에 선교국의 정책과 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공문 발송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 선교국위원회 : 선교국위원회는 선교국의 정책과 사업 계획을 시행하도록 결의하고, 예산 심의와 세칙 등의 승인,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책 계발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
- 총회(총회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보고서 : 총회와 연회에 보고하는 정기보고서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특별한 일정에 따른 자료를 통해 총회(총회실행부위원회)나 연회가 이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 감독회의 자료 : 감독회의를 통하여 준비한 자료로 선교국 주

요 일정과 국제선교협력회의 등을 을 알리고, 연회 차원의 참여를 돕도록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는다.

## 2. 대외협력

선교의 다양화에 맞는 대외협력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교단 선교국이나 선교단체, 기관들과의 협력과 공유업무, 국가행정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각 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한다.

- 각 교단 선교국의 정책 공유 및 공동 연구에 관한 업무
- 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협력에 관한 업무
- 선교연합회 협력업무 :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 위기관리 관련 단체와의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 한정국)
- 선교단체(기업)와의 업무협약 및 정기간담회

## 3. 선교국 행정 및 회계

선교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과 회계 전반의 업무를 통해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 각종 공문, 협조문 등의 접수 및 발송의 업무
-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에 대한 취합과 인쇄, 발송의 업무
- 그 외 선교국 행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전반

## 4. 선교국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선교국과 각 부서의 정책 소개하고, 각 부서의 자료실과 게시판, 서식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또한 선교국이 추천하는 중점 사업 등에 대한 홍보, 대언론 업무 등이 이에 속한다.

- 홈페이지 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선교국 각 부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 대언론 업무

## 5. 대외문서 업무

선교국 대외협력 업무로 인한 각종 문서의 수발, 배부, 보관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각 부서 외의 문서에 관한 업무 전반

## 6. 선교국 관련 증명서 및 총무 추천서 발급

선교국 국위원장이나 총무의 결재에 의한 증명서 발급과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한 총무명의로의 추천서 발급의 업무를 맡고 있다.

- 대내외적 증명서 관련한 업무와 총무 추천서를 발급하는 업무

## 7. 선교국 정책조율 업무

선교국 총무를 통해 시행되는 선교국의 직무 중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총무를 통하여 조율하도록 돕는 업무를 말한다.

- 위원회 간의 정책이나 부서 간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율의 업무를 관장

## II. 선교사 후원복지 업무

매년 11월 둘째 주일로 지키는 선교사복지주일은 모든 감리교회가 선교사의 후원과 복지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날로 그 의미가 있다. 선교사를 초청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금하는 참여를 통해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감리교회로서의 일체감을 확립하게 되고, 선교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송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선교사 후원복지의 업무는 선교사복지주일에 관한 정책과 사업 외에도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345】제145조(선교국의 직무)에 언급된 선교사 복지증진을 위한 및 선교 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업무가 이에 속하며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한다.

## 1. 선교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선교사의 건강유지를 위해 선교사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및 병원과의 MOU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이전까지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후원금과 정책 예산으로 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부득불 검진을 2년에 1번 실시한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과 심리치료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2. 선교사 경조비 지원

선교사 및 선교사 직계가족의 각종 경조사에 대해 선교국은 책정된 경조비를 지원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정하고 있다.

## 3. 선교후원교회 협력(선교동원 프로젝트)

선교하는 감리교회를 지향하고, 선교동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교협력 매칭 프로젝트를 계발한다. 선교사들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국내 후원교회와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원교회가 선교사의 후원교회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후원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나가야 한다.

## 4. 은퇴선교사 관리 및 노후 정책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인구에 대한 전망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 사회에 대두되는 고령인구 사회로의 상승 폭은 선교사에게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감리회 파송선교사 1,292명

중 25%에 해당하는 316명 정도가 15년 이내에 은퇴할 나이에 속해 있고, 이들을 위한 관리 및 노후 정책은 선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국의 몫이다. 이를 위해 점차로 늘어나는 은퇴선교사에 대한 준비와 명예선교사, 원로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 은퇴선교사들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의 병행과 후학 양성에 대한 정책 연구는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5. 선교사 지원 정책

선교사가 현지에서 혹은 국내 입국시 받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은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선교사 사역 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정책은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게스트 하우스나 렌트카, 그리고 기업 및 단체를 통한 지원업무 전반을 말한다.

## 6. 선교사 유가족 복지 정책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한 선교사의 유가족을 위하여 복지 정책을 세우고, 장례비 지원과 장례식을 유족과 상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7. 선교사 보험

선교사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대비하도록 교육하여 선교사보험을 들게 하는 정책이다. 후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개인 가입의 방법, 그리고 KWMA를 통하여 선교사 단체가 가입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Ⅲ. 선교사위기관리 업무

그리고 2021년 장정에 신설된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관한 정책과 기금의 운용, 이를 위한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업무 전반이 이에 속한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업무가 속하며, 대표적으로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업무 전반과 세계선교기금의 운용의 업무를 맡고 있다.

#### 1. 위기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선교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전쟁, 정치사회적 격변, 선교사 및 자녀 납치, 순교, 사망, 사고 등으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2개월 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정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행정적인 방안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2. 선교사의 사건과 사고, 질병 및 순직(순교), 재원 조달 및 지급 절차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피난의 경우, 현지선교사회가 의견을 모아 결정하여 선교국에 보고하되, 현지 교회가 있을 경우,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잔류 혹은 피난 조치 중 현지의 정서와 이후의 선교적 환경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세계선교기금에 따른 운용의 업무

세계선교기금은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운용하고 있다. 선교사의 위기 상황에 따른 지급 규정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에게 고르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익을 위한 장기 예치에 관한 규정, 피해 금액에 대한 상한선 규정, 1년 이내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 보류 규정, 나라 대표(지역 대표)와 선교사회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규정 등을 두어 세계선교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 세계선교기금 운용 현황 -**

내 용	수 입 부	지 출 부	기준일
연회별 납부액	2,094,746,603원	-	2022.12.31.
연회미납금 입금	5,031,000원	-	2023.8.3.
1차 지급(7명)	-	24,246,210원	2023.10.20.
2차 지급(9명)	-	22,729,450원	2023.11.20.
선교사회 위기관리기금 입금	27,000,000원	-	2023.12.20.
3차 지급(17명)	-	46,212,860원	2024.1.23.
잔 액	2,033,589,083원		

※ 2023년 세계선교기금은 본부회계부에서 연회별로 정리 중

**4.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업무**

선교사들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갖가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선교국에 조직하여 후원교회, 정부와 공동으로 대처한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선교사의 보고를 통하여 그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가 세계선교기금 지급을 결의하도록 한다.

## IV. 선교행정부 위원회

### 1.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위 원 장	이용원 감독	서울/도봉/영천교회	- 선교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 세계선교기금 운용 및 심사
당연직위원	태동화 총무	감리회본부 선교국	
위 원	김태근 목사	서울남/강서/뽕옐교회	
위 원	조현행 장로	중앙/분당/만나교회	
위 원	김득수 목사	충청/온양동/온천제일교회	
위 원	성 백 목사	서울남/구로/행복한교회	
위 원	진인문 목사	경기/평택동/하복교회	
위 원	이영태 목사	서울남/강서/성현교회	
위 원	윤광섭 선교사	중부/주안/주안교회 (태국, 선교사 회장)	
위 원	최윤수 선교사	중부/부천남/동부천교회 (필리핀, 전 선교사 회장)	

### 2.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위 원 장	김득수 목사	충청/온양동/온천제일교회	- 선교사후원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연구  - 선교사 복지 주일에 관한 계획
당연직위원	태동화 총무	감리회본부 선교국	
서 기	오인석 목사	중부/고양/능곡교회	
위 원	이근희 목사	중부/인천북/서광교회	
위 원	김성용 목사	호남/전주/노송교회	
위 원	성 백 목사	서울남/구로/행복한교회	
위 원	최윤수 선교사	중부/부천남/동부천교회 (필리핀, 전 선교사 회장)	
위 원	차영섭 목사	서울남/양천/한사랑교회	





# 부 록

- 2023년 사업보고 -



## 200만 전도운동

### 1. 조직

- 1) 대표 : 이철 감독회장
- 2) 본부장 : 김찬호 감독(중부연회)
- 3) 서기 : 이원상 장로(서울연회)
- 4) 선교국담당자 : 홍석민 부장, 이효충 과장
- 5) 연회별 전도대장 : 목회자 1명, 평신도 1명

연회	구분	이름	직분	소속(연회/지방회/교회)
서울	목회자	이상일	목사	서울/성북/하늘이음
서울	평신도	이원상	장로	서울/은평/응암
서울남	목회자	김종구	목사	서울남/양천/세신
서울남	평신도	이상학	장로	서울남/잠실/강남중앙
중부	목회자	신정규	목사	중부/시흥북/새힘
중부	평신도	이상호	장로	중부/인천북/서광
경기	목회자	이수기	목사	경기/동탄/평화
경기	평신도	김용연	장로	경기/안산/안산성광
중앙	목회자	권혁중	목사	중앙/성남/성남제일
중앙	평신도	김지호	장로	중앙/이천북/이천중앙
동부	목회자	곽영준	목사	동부/철원서/철원
동부	평신도	정인수	장로	동부/원주남/아펜젤러
충북	목회자	홍일기	목사	충북/괴산/괴산중앙
충북	평신도	허경자	장로	충북/제천동/제천제일
남부	목회자	홍광표	목사	남부/대전중앙/중부
남부	평신도	송명섭	장로	남부/연무/연무중앙
충청	목회자	정진원	목사	충청/홍주/홍주제일
충청	평신도	최택용	장로	충청/온양서/향산
삼남	목회자	주인백	목사	삼남/부산남/변영로
삼남	평신도	이승호	장로	삼남/경북북/의성서문
호남특별	목회자	우영운	목사	호남특별/광주/합평
호남특별	평신도	김해숙	권사	호남특별/여수광양/여수제일
미주자치	목회자	고영우	목사	미주자치/캐나다서부/주님의제자
미주자치	평신도	홍정표	장로	미주자치/미동부/하비스트

## 2. 전도운동 슬로건 공모

- 1) 기간 : 2023년 3월 22일(수) ~ 4월 21일(금)
- 2) 당선작 : “환한 미소와 따스한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지입니다.”
- 3) 당선자 : 주홍덕 목사(서울연회 종로지방 독립문교회)

## 3. 연회 전도대장 1차 모임

- 1)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후 1시
- 2) 장소 : 감리회본부 13층 회의실
- 3) 대상 : 수도권 연회 및 동부연회 전도대장
- 4) 내용 : 200만 전도운동의 취지 설명, 계획 논의

## 4. 연회 전도대장 2차 모임

- 1)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정오 12시
- 2) 장소 : 대전 애슐리 컨즈 NC
- 3) 대상 :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특별연회 전도대장
- 4) 내용 : 200만 전도운동의 취지 설명, 계획 논의

## 5. 연회별 전도운동 보고

- 1) 서울연회
  - ① 평신도전도학교 전도꾼 만들기
    - 4월 20일 ~ 6월 8일(매주 목, 총 8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진관교회
  - ② 3.3.1. 총력전도주일 출정예배
    - 9월 9일(토) 오전 7시 30분 / 하늘이음교회
  - ③ 평신도 단체 연합 성탄절 특별전도대회
    - 12월 21일(목) 오후 5시 / 감리회관
- 2) 서울남연회
  - ① 서울남연회 목회계획세미나 (주제 :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 10월 17일(화) ~ 20일(금) / 대천 파로스 콘도

### 3) 중부연회

- 31개 지방회를 6권역으로 묶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도 실시함.

권역	지방회
제1권역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새인천, 새인천북, 옹진, 김포(7개 지방회)
제2권역	인천북, 주안, 부평동, 부평서, 인천중앙(5개 지방회)
제3권역	연수동, 연수서, 남동, 남동서, 시흥남, 시흥북, 구월(7개 지방회)
제4권역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4개 지방회)
제5권역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4개 지방회)
제6권역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4개 지방회)

- ① 옹진지방회 덕적면 8개교회 연합전도집회  
- 6월 28일(수) ~ 29일(목) / 덕적제일교회
- ② 장로회중부연회연합회 안동지역 전도대회  
- 10월 9(월) ~ 10일(화) / 안동제일교회
- ③ 옹진지방회 북도면 8개교회 연합전도집회  
- 10월 18일(수) / 시도교회
- ④ 시흥북지방 전도대회  
- 11월 11일(토) 오전 9:30 / 신천교회
- ⑤ 200만 전도운동 전도집회  
- 11월 25일(토) 오후 3시 / 인천공항교회
- ⑥ 부평서지방 전도세미나(웨슬리전도학교 주관)  
-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12시, 오후 7시 ~ 9시 / 산곡교회

### 4) 경기연회

- ① 경기연회 43개 교회 ‘희망교회 세우기’ 멘토 & 멘티 조인식  
- 3월 30일(목) 오전 11시 / 신광교회
- ② 희망교회 세우기 전반기 컨퍼런스

- 6월 1일(목) 오전 11시 / 수지목양교회
- ③ 희망교회 세우기 하반기 컨퍼런스
  - 10월 30일(화) ~ 11월 1일(수) /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

#### 5) 중앙연회

- ① 속회지도자 전도교육
  - 1월 6일(금), 13일(금) / 선한목자교회
- ② 연회 단체 회장단 전도훈련
  - 4월 17일(월) ~ 19일(수) / 제주
- ③ 연회 교사 전도교육
  - 5월 23일(화) / 동두천 광주교회
- ④ 연회 목회자, 사모 성회 및 전도교육
  - 9월 4일(월) ~ 6일(수) / 속초
- ⑤ 평신도 수련회를 통한 전도교육
  - 10월 28일(토) / 광림수도원

#### 6) 동부연회

- ① 새영월지방 전도대회
  - 9월 10일(주일) / 영월대교회
- ② 태백지방 전도대회
  - 9월 10일(주일) ~ 12일(화) / 루아교회
- ③ 철원서지방 전도대회
  - 10월 1일(주일) ~ 2일(월) / 철원교회
- ④ 평창지방 전도대회
  - 11월 1일(수) / 대화남부교회
- ⑤ 정선지방 전도대회
  - 11월 5일(주일) / 정선교회

## 7) 충북연회

- ① 평신도 영성수련회
  - 8월 21일(월) ~ 23일(수)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 ② 평신도지도자 세미나
  - 11월 3일(금) ~ 4일(토) / 수안보상록호텔
- ③ 속회지도자 세미나
  - 12월 4일(월) / 진천교회

## 8) 남부연회

- ① 남부연회 Re-jump church 전도컨퍼런스 제1차 세미나
  - 4월 11일(화) 오후 1시 / 서광교회
- ② 남부연회 Re-jump church 전도컨퍼런스 제2차 세미나
  - 6월 27일(화) 오후 1:30 ~ 5시 / 천성교회
- ③ 남부연회 Re-jump church 전도컨퍼런스 제3차 세미나
  - 9월 26일(화) 오후 1:30 ~ 5시 / 하늘문교회
- ④ 교역자 영성수련회 '전도소그룹', '목회자의 자기관리'
  - 11월 20일(월) ~ 22일(수) / 옥천 제자들교회 수양관

## 9) 충청연회

- ① 전도컨퍼런스 설명회
  - 7월 12일(수) 오전 10시 / 온천제일교회
- ② 전도컨퍼런스 제1차 세미나
  - 8월 31일(목) 오전 10시 / 동부교회
- ③ 전도컨퍼런스 제2차 세미나
  - 10월 11일(수) 오전 10시 / 삼봉교회
- ④ 전도 컨퍼런스 제3차 세미나
  - 11월 9일(목) 오전 10시 / 참소망교회

10) 삼남연회

① 진주지방 전도부흥회

- 9월 17일(주일) ~ 20일(수) 오후 7시 ~ 9:30 / 강남교회

② 목회자전도학교 (웨슬리전도학교 주관)

- 10월 16일(월) ~ 18일 / 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

11) 호남특별연회

① 호남특별연회 '전도컨퍼런스' 발족 감사예배

- 6월 11일(주일) 오후 5시 / 군산비전교회

② 호남연회 전도세미나

- 9월 7일(목) ~ 8일(금) / 예향교회

③ 제1차 전도컨퍼런스

- 10월 23일(목) / 영생교회

④ 제2차 전도컨퍼런스

- 12월 15일(금) / 예향교회

# 100년 기도운동

## 1. 조직

- 1) 대표 : 이 철 감독회장
- 2) 본부장 : 백용현 목사(한빛교회)
- 3) 사무총장 : 이상혁 목사(개포교회)
- 4) 선교국 담당자 : 홍석민 목사(국내선교부 부장), 이효충 목사(국내선교부 과장)

## 2. 진행과정

- 1) 용문산기도원 구국제단 60주년 학술제 - 100년 기도운동 제안 (2023. 4. 29.)
- 2) 제35회 총회 제4차 감독회의 - 100년 기도운동 결의(2023. 5. 11.)
- 3) 100년 기도운동 준비기도회 개최 - 용문산 기도원(2023. 6. 30.)
- 4) 100년 기도운동 신청 시작 및 조직 확정(2023. 7. 6.)
- 5) 100년 기도운동 발대식 - 한빛교회(2023. 9. 1.)

## 3. 내용소개

- 1) 100년 기도운동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며 기도를 명하신 성부 하나님과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모범이 되신 성자 예수님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증보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 2) 100년 기도운동은 성도의 한 시간의 기도를 이어 교회의 하루 기도를 채우고(24시간 성도의 기도), 교회의 하루 기도를 이어 1년을 채우고(365 교회의 기도), 그 1년이 100년이 되기까지(모든 교회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 3) 100년 기도운동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드린 성결의 기도와 존

웨슬리가 드린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와 원산에서 하디가 드린 회개의 기도와 용문산에서 드린 구국 기도를 이어가는 기도운동입니다.

- 4) 100년 기도운동은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운동, 기도로 교회의 내일을 밝히는 기도운동, 기도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운동입니다.

#### 4. 참여교회 (2023. 9. 1. ~ 2024. 12. 31.)

가남교회 (중앙/여주동)	남산교회 (동부/춘천서)
가양교회 (남부/대전동)	남인천교회 (중부/주안)
가양제일교회 (서울남/강서)	능곡교회 (중부/고양)
가평교회 (충북/단양동)	능동교회 (중부/김포)
가평중앙교회 (중앙/가평)	답십리교회 (서울/동대문)
갈마교회 (남부/대전서북)	대관교회 (중앙/이천중앙)
갈보리교회 (서울/성동광진)	대부제일교회 (경기/안산대부)
강경대흥교회 (남부/강경)	대성교회 (중부/김포)
개포교회 (서울남/강남동)	대원교회 (중앙/성남동)
경신교회 (중앙/양주)	대전서광교회 (남부/대전유성)
경원교회 (중부/인천서)	대조교회 (서울/은평동)
경주교회 (삼남/경북동)	대진제일교회 (호남특별/전남서)
공암교회 (남부/공부)	더불어사는교회 (남부/대전중부)
공주농야교회 (남부/공주)	도화교회 (중부/인천남)
공주중앙교회 (남부/공주)	동대전교회 (남부/대전)
과천은파교회 (경기/군포)	동래온천교회 (삼남/부산서)
광림교회 (서울남/강남)	동문교회 (서울/도봉)
광림동교회 (중앙/남양주)	동부교회 (충북/제천동)
광명교회 (서울남/구로)	동부교회 (충북/충주서)
광장교회 (동부/춘천남)	동산교회 (남부/대전유성)
광주교회 (중앙/광주하남)	동산교회 (서울남/관악)
광하교회 (동부/정선)	동수원교회 (경기/수원팔달)
괴산중앙교회 (충북/괴산)	동탄교회 (경기/동탄)
구봉교회 (남부/대전서남)	동탄꿈의교회 (경기/동탄)
굴운교회 (동부/홍천서)	둔내교회 (동부/횡성)
꿈마을예인교회 (경기/수원팔달)	둔산성광교회 (남부/대전둔산)
꿈이있는교회 (중부/일산서)	등대교회 (중부/부천북)
낙원교회 (중부/구월)	딴필교회 (남부/부여)
남북교회 (중부/인천서)	러시아 연해주 우골니아교회 (중부/인천서)



루아교회 (동부/태백)	삼양중앙교회 (서울/강북)
마석교회 (중앙/남양주)	삼일상동교회 (경기/수원팔달)
마을교회 (남부/금산)	삼척제일교회 (동부/동해삼척)
마음숲교회 (경기/수원팔달)	삼청교회 (서울/종로)
마장포교회 (중부/인천서)	상계광림교회 (서울/노원)
매포교회 (충북/단양동)	상주교회 (삼남/경북북)
목양교회 (경기/용인서)	새누리교회 (중부/인천동)
목양교회 (중부/연수서)	새샘교회 (서울/동대문)
목양교회 (충청/당진남)	새생명교회 (남부/논산)
몬트리올한인교회 (미주/캐나다동부)	새순교회 (중앙/동두천)
몽고메리제일교회 (미주/미동남부)	새터교회 (중앙/여주동)
문막교회 (동부/원주동)	샘터교회 (중부/부평서)
문상교회 (충북/진천)	샘튼교회 (중부/인천동)
문학산교회 (중부/인천남)	생기교회 (경기/수원팔달)
물댄동산교회 (경기/새광명)	살롬교회 (중앙/남양주)
반송온누리교회 (삼남/부산동)	서강교회 (서울/마포)
백운교회 (서울/강북)	서대구교회 (삼남/대구)
벤엘교회 (서울남/금천)	서부교회 (충북/충주서)
보라매연합교회 (서울남/관악)	서인천교회 (중부/새인천)
복민교회 (삼남/창원동)	서초교회 (서울남/서초)
복음천하교회 (남부/대전서)	선광교회 (동부/정선)
봉천교회 (서울남/관악)	선한목자교회 (중부/부평서)
부곡교회 (경기/군포)	선한목자교회 (중앙/성남)
부광교회 (중부/부평동)	선한이웃교회 (서울남/양천)
부근교회 (중부/강화서)	선한이웃교회 (중앙/이천중앙)
부산중앙교회 (삼남/부산서)	성곡교회 (경기/평택서)
부암교회 (삼남/부산서)	성광교회 (서울남/금천)
부여제일교회 (남부/부여)	성광교회 (중부/부천남)
부평중부교회 (중부/부평동)	성남교회 (남부/대전동)성남반석교
부활교회 (중앙/의정부)	회 (중앙/성남)
불꽃교회 (삼남/부산서)	성덕교회 (중부/주안)
불꽃교회 (중앙/분당)	성민교회 (중부/고양)
비전교회 (호남특별/군산)	성산교회 (남부/대전서남)
빛가온교회 (서울/노원)	성안교회 (경기/수원권선서)
빛교회 (서울남/서초)	성은교회 (동부/철원동)
사강교회 (경기/사강)	성은교회 (중부/부천남)
사곡교회 (동부/철원동)	성화교회 (중앙/분당)
사도교회 (충북/청주서)	세검정교회 (서울/종로)
사랑의등지교회 (남부/대전서남)	세광교회 (남부/대전서)
사북교회 (동부/정선)	세종교회 (남부/세종)
사천교회 (동부/강릉북)	소망교회 (중부/주안)

송은교회 (서울남/영등포)	영동교회 (충북/영동)
수원성교회 (경기/수원팔달)	영등포중앙교회 (서울남/영등포)
수원성화교회 (경기/수원팔달)	영월대교회 (동부/새영월)
수원제일교회 (경기/수원팔달)	영일교회 (동부/속초북)
수원종로교회 (경기/수원팔달)	영중중앙교회 (중부/인천서)
수원한사랑교회 (경기/수원팔달)	예산원포교회 (충청/예산서)
수항교회 (동부/평창)	예산중앙교회 (충청/예산)
시내산교회 (중앙/광주동)	예수공동체교회 (중앙/광주하남)
시온성교회 (서울남/잠실)	예수마을교회 (서울/도봉)
시온성교회 (충북/제천서)	예수사랑교회 (경기/수원팔달)
시온중앙교회 (남부/대전서)	예수사랑교회 (중부/연수동)
신광교회 (충북/제천동)	예안교회 (서울남/강서)
신내교회 (서울/중랑)	예일교회 (중부/연수동)
신도교회 (서울남/양천)	예향교회 (호남특별/광주)
신동교회 (동부/정선)	오산교회 (경기/오산)
신림제일교회 (서울남/관악)	오산성애교회 (경기/오산)
신석제일(은혜)교회 (호남특별/익산)	오송광림교회 (충북/청주서)
신성제일교회 (남부/대전유성북)	왕흥교회 (남부/공주)
신현교회 (중부/새인천)	요엘선교회 (남부/대전서)
신화교회 (충청/아산)	용두동교회 (서울/동대문)
쌍용교회 (동부/새영월)	용유중앙교회 (중부/인천서)
아현교회 (서울/서대문)	용탄교회 (동부/정선)
안동제일교회 (삼남/경북북)	원당교회 (충북/음성서)
안디옥교회 (남부/대전중부)	원천교회 (경기/남양)
안서교회 (충청/천안중앙)	유정교회 (중앙/광주동)
안성제일교회 (경기/안성)	은제교회 (서울/서대문)
양광교회 (서울/은평)	은평교회 (서울/은평)
양남교회 (서울남/영등포)	은평교회 (호남특별/은평)
양문교회 (서울남/구로)	은혜교회 (중부/부천동)
양정교회 (중앙/이천북)	은혜와사랑의교회 (남부/연무)
에덴교회 (충북/충주동)	음성교회 (충북/음성)
여주중앙교회 (중앙/여주서)	의정부제일교회 (중앙/의정부)
여흥교회 (중앙/여주동)	이화교회 (중부/인천북)
역곡교회 (중부/부천동)	인아교회 (중부/인천서)
연산제일교회 (남부/논산)	인제교회 (동부/인제)
열린교회 (서울남/강서동)	일신교회 (서울/중구용산)
열림교회 (서울/마포)	임계제일교회 (동부/정선)
열매교회 (서울남/잠실)	입암교회 (호남특별/전북서남)
열우물교회 (중부/부평서)	작전동교회 (중부/인천북)
영광교회 (서울남/영등포)	장호원교회 (중앙/이천남)
영도한사랑교회 (삼남/부산남)	전곡교회 (중앙/연천)

전농교회 (서울/동대문)	큰기쁨교회 (중부/주안)
전동교회 (중부/인천서)	큰나무교회 (동부/원주서)
전주제일교회 (호남특별/전주)	평안교회 (충북/충주서)
정동제일교회 (서울/중구용산)	평창중앙교회 (동부/평창)
정선교회 (동부/정선)	평화교회 (호남특별/여수광양)
제일교회 (충북/충주서)	풍요로운교회 (남부/대전유성북)
제천제일교회 (충북/제천동)	하나교회 (남부/대전서)
조암교회 (경기/화성)	하나로교회 (중부/인천서)
주기쁨교회 (중부/부평서)	하나로중앙교회 (중부/파주)
주내교회 (중앙/양주)	하노버한민교회 (중앙/유럽)
주문진교회 (동부/강릉북)	하늘가족교회 (서울/마포)
주산교회 (호남특별/전남동)	하늘문교회 (남부/대전서북)
주성교회 (호남특별/군산)	하늘빛교회 (남부/대전북)
주음성교회 (경기/용인서)	하늘이음교회 (서울/성북)
주중좋은교회 (충북/청주북)	한강교회 (중부/일산동)
중부교회 (중앙/성남)	한남제일교회 (남부/대전북)
중앙교회 (중부/인천서)	한뜻교회 (중앙/구리)
중앙교회 (충북/제천서)	한빛교회 (경기/새광명)
중촌교회 (남부/대전중부)	한빛교회 (남부/대전서)
직실교회 (동부/영월)	한소망교회 (삼남/부산서)
진관교회 (서울/은평동)	함백제일교회 (동부/정선)
진관교회 (서울/은평동)	합정교회 (경기/평택남)
진부교회 (동부/평창)	행복을주는교회 (남부/대전중부)
진천제일교회 (충북/진천)	행복한교회 (경기/안양)
진해제일교회 (삼남/창원동)	행복한옥토교회 (중부/인천동)
참사랑교회 (남부/대전중부)	현리중앙교회 (중앙/가평)
참평안교회 (서울남/관악)	형제교회 (충북/청주서)
창후교회 (중부/강화서)	헤림교회 (경기/군포)
창후교회 (중부/강화서)	혜명교회 (서울/종로)
천성교회 (남부/대전유성)	혜성교회 (서울/은평)
청북은혜교회 (경기/평택북)	혜성교회 (서울남/강남)
청주벤엘교회 (충북/청주서)	호산나교회 (서울남/금천)
청주에덴교회 (충북/청주북)	홀리위크교회 (서울/은평)
초대교회 (호남특별/익산)	화양교회 (서울/성동광진)
추산교회 (충북/괴산)	햇빛교회 (경기/안산동)
춘천명성교회 (동부/춘천서)	햇빛교회 (삼남/경북서)
충무교회 (삼남/한려)	흥월교회 (동부/새영월)
충북제일교회 (충북/충주동)	희망교회 (경기/화성중앙)
충주교회 (충북/충주동)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 정책자료집

- 발행일 : 2024. 2. 29.
- 발행인 : 태동화
- 편집인 : 문희인
- 편집실무 : 김지민

---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전화번호 02)399-4333 / 4292  
홈페이지 [www.kmc.or.kr](http://www.kmc.or.kr)  
이 메 일 [kmc4341@hanmail.net](mailto:kmc4341@hanmail.net)